

『수석교사 역할 강화를 통한
수업·교육 전념 여건 조성』 사업 4차 포럼

수석교사제 운영 우수사례 경남권역 발표자료집

2022. 11. 29. (화) 14:00-16:00

온라인 포럼  YouTube  교육부TV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



주관

CERI 융합교육연구소
Convergence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교육부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 교육부



목 차 CONTENTS

- 1. 문지영** 수석교사(경남교육청/김해울산초등학교)
“수석교사의 다양한 교내외 지원활동” ----- 5
- 2. 정종희** 수석교사(경남교육청/양산중학교)
“수업 나눔으로 성장하는 학교, 수석교사가 있다!” ----- 27
- 3. 김새로나** 수석교사(경남교육청/창원남산고등학교)
“전문가인 교사의 성인 학습자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성찰프로그램의 도입” --- 41
- 4. 조보형** 수석교사(경남교육청/총무고등학교)
“내가 수석교사를 해야 하는 이유” ----- 61

수석교사의 다양한 교내외 지원활동

문지영(김해울산초등학교 수석교사)

< 목 차 >

1. 수석교사의 11월은 안녕하십니까?
2. 업적평가 보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3. 수석교사를 부르는 곳이라면 기꺼이
4. 존엄과 현대의 관계부터 다시 시작하자

1. 수석교사의 11월은 안녕하십니까?

수석교사의 11월은 1년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달이다. 업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때문이다. 업적평가는 1.1~12.31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경남에서는 11월 초에 업적평가 보고서 제출 안내 공문이 발송되었다. 업적평가 보고서는 11.25.(금)까지다. 1주일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거친 후, 11.25.(금)까지 교육청에 제출한다. 단, 사립학교는 시기가 다르다.

어느새 업적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벌써 열세 번째이다. 2010년 시범운영부터 시작하였으니 이미 충분히 익숙해졌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더러는 꽤나 몸살을 앓는 경우도 있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보고서 작성을 일찌감치 끝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교내 활동은 계속 이어지므로 일찍 끝내기란 쉽지 않아 늘 기한을 거의 맞출 때가 많다. 하필 11월에는 여러 가지 교육행사들이 많은데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보고서 작성할 시간이 없어 밤을 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열세 번째 수석교사 활동을 정리하면서, 본 원고를 쓰기 위해 이전의 수석교사 활동들을 함께 돌아보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부터 거의 모든 교외 지원활동이 끊어지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적었던 교내 지원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21년은 교내 지원활동은 여전한데 교외 지원활동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교내 지원활동은 줄어들고 교외 지원활동이 증가하였다. 학교가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대면 행사들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업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공문서 확인이다. 활동했던 실적을 확인해주는 근거자료를 찾기 위해서이다. 접수 공문과 기안 공문 목록을 확인하고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을 업적평가 공문에 제시된 수석교사 활동 영역별로 분류하여 하나둘 기록하고, 근거자료들을 제시하여 실적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정리하여 자기실적 평가서를 작성한다. 업적평가 보고서는 학년 초에 작성한 수석교사 활동 계획서를 가장 먼저 제시

하고, 자기실적 평가서, 실적 포트폴리오, 연수 실적의 순으로 작성하여 20쪽 이내로 정리한다. 정리하고 보면, 활동 계획서와 실제 활동의 내용이 다를 때도 있다. 대부분은 교내 활동을 많이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이다. 교외 활동이 많아도 교내 활동이 적을 때는 쓸쓸함을 느낀다. 이런 경우 학기 중에는 속상할 때가 더 많았다. 이미 지난 3회 동안의 수석교사 포럼에서 다룬 것처럼 수석교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누구도 수석교사를 부르지 않고 반기지 않는데 수석교사 스스로 역량을 발휘하여 교내 활동을 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다. 특히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 연수와 대면 수업협의를 대부분이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전체 대면 모임은 물론이고 소그룹의 대면 모임도 조심스러워 저경력교사 멘토링 장학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도 이와 같은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연수나 수업협의를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누리교실 지도 시간이 생겨 수업 후 모임을 갖기도 쉽지가 않다. 이런 변화는 소통의 구조도 변화하게 하였다. 센세의 학습하는 조직에서 시스템 사고가 필요함을 말해주듯, 원활한 소통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석교사의 교내 지원 활동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수석교사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하기에는 복수교감이 있는 대규모 학교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을 얼마나 더 부르고 불러야 할까. 어떤 이는 이를 두고 목 놓아 부르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수석교사제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목 놓아 불러야만 하는가. 11월은 이러한 현실을 더욱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수석교사의 11월은 잔인하다.

수석교사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교사 개인의 수업 지원을 넘어 교육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때로는 필수 직무가 강하게 요구되고 활발하게 펼쳐질 때도 있고, 때로는 보조 직무가 강하게 요구되기도 한다. 결국 수석교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혹은 요청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교내외 활동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교내 활동만 하려면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가능하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 코로나 시기였던 2020, 2021은 교외 활동이 거의 없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2년은 2년 간 시행되지 못한 다양한 활동이 다시 제기되었기에 수석교사의 교내외 지원 활동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쩌면 교내 활동보다 교외 활동이 더 많아졌을 수도 있겠다. 수석교사 활동을 발표하는 것은 잘해서가 아니다. 그냥 평범한 보통의 수석교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기록함으로써 최소한의 수석교사 활동을 가늠하고 이보다 더 다양한 수석교사의 활동을 인정해주고 수석교사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이다.

2. 업적평가 보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1) 업적평가 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으나 처음 해 본 교내 지원활동들

현재 근무하는 학교는 2021년에 오게 되었는데, 지역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경남에서는 수석교사제가 아무리 법제화되었다고는 하나, 이동할 때 교장선생님에게 미리 연락을 하여 말씀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많은 편이다. 언제쯤 연락을 드렸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겨울방학 기간이었음은 분명하다. 다행히도 흔쾌히 반겨주셔서 다소 마음 편히 이동할 수 있었다. 2020년에 신설한 학교이고 2021년에는 업무행정지원전담팀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여 2월 중에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교감선생님과 협의 시간을 가졌다. 업무행정과 학교 운영은 교감이, 교육과정(수업) 운영은 수석교사가 맡기로 하고, 2월 새학년 맞이 워크숍 기간

에 학교 부임하자마자 선생님들과 학년 교육과정 세우기 워크숍 시간을 가졌다. 업무전담팀과 분리되어 운영되어도 교감은 학교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야 했고, 신설학교로서 시설과 조직, 시스템 정비를 위해 수석교사도 학교의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아이디어를 내어주기를 원하는 학교장의 의지로 인해 매일 아침 9:10에 열리는 참모회의 시간에 수석교사도 당연히 참석하였고 이것은 1학기 중반까지 계속 되었다. 참모회의는 1학기 말부터 주3회로 줄이고 2학기 중반부터는 주2회로 줄였지만 여전히 학교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학생 중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한밤중에도 학교에 달려가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마음으로 도왔으며 교사들 중 코로나 밀접접촉으로 인해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보결 수업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물심양면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참여를 하였다.

특히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연구부장이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연구부장도 처음인데다 이러한 업무도 처음이라 전임 연구부장이 많은 것을 안내해주고 도와주었지만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에 대해 하나하나 안내해주었고 학년 교육과정 계획, 수업공개 계획, 1학기 학교 교육과정 운영 평가, 2학기 학교 평가와 교육계획 수립 등 연구부장으로서는 기본적으로 할 일을 미리 안내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의 방침이 연구부의 교육과정 관련 업무는 수석교사와 의논하라는 것이었다. 다만 수석교사와만 의논하면 교감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교내 지원활동은 업적평가에 정량적으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자기실적 평가서에 창의적 업무개선 사항으로 '참모회의 참석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이렇게 딱 한 줄을 넣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업적평가 보고서 어디에도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내 지원활동이 더 많았다. 사실 이것은 수석교사의 필수 직무가 아니고 보조 직무이라 할 수 있다. 3월 개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부터 쏟아지는 봄비에 우산을 쓰고 온 아이들이 중앙 현관 앞에 비치된 학반별 우산꽂이에 우산을 제대로 넣을 수 있도록 누구도 시키거나 부탁하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지도했던 일부터 3층 복도에 소방테이프가 떨어져서 덜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참모회의에서 이를 이야기하여 교내 복도 일체를 점검하고 보수했던 일 등 지금은 일일이 다 기억할 수도 없이 많았던 작은 일들이 있었고, 그때그때마다 웬지 모르게 수석교사로서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이런 활동은 교직원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4월 초 학교 안전의 날에 학교 전체를 둘러보며 시설 점검을 교장, 교감, 행정실장과 함께 했는데 이런 활동은 사실 지금까지 수석교사에게는 거의 없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학교 시설 및 안전 등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교내 지원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며 책무성을 조금 더 갖게 한 것은 분명했다.

2) 수석교사로서 자기효능감을 느끼고 역량 발휘의 기회를 갖게 되다

수석교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학교장이나 교육과정 협의체에서 수석교사에게 학교 교육과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주는 것이 중요했다. 수석교사로서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해도 수업공개 과정안 등 관련 공문서를 수석교사 전결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교감도 결재를 해야 했기에 수석교사의 문서 결재보다는 오히려 수석교사와 수업협의과정을 가졌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굳이 결재권 여부를 따지지는 않았다. 불과 작년 일인데도 결재를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걸 보니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였던 것 같다. 결재권이 없어도 수석교사로서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수석교사의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참모회의에서 학교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고 의견을 제시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여 월1회 그림책 오픈 강의를 지시하여 수석교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고,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자신의 수업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료장학 공개수업 기간에는 교장, 교감과 같이 모든 수업을 참관하도록 하였다. 작년에는 주 9시간의 수업을 하였는데 1~2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였다. 수업 참관을 통해 사전협의회에서 의논된 내용이 실제 수업에서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업 후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개인이나 학년에 감사와 응원의 노트를 하기도 했다. 동료장학 수업공개 기간에는 주 9시간 수업에 학년의 수업 참관까지 더하여 거의 15시간~20시간의 수업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6학년부터 시작하여 1학년까지 매주 1개 학년씩 6주간 계속된 수업참관은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수석교사로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자기효능감을 갖게 해준 감사한 시간이었다.

물론 수업참관이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반갑지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수업참관을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하였다. 수업 시간이 늘어서 수업참관도 쉽지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능한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기도 했다. 덕분에 수석교사로서 할 일이 줄어들고 보고서에 쓸 내용도 줄었다. 마음 같아선 수업 참관을 아예 안하고 싶기도 했는데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도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관하시는 분이셔서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가능한 수업 참관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최대한 수업에 대한 예의를 갖춰 교실을 들어갈 때 선생님 과 눈을 마주치면 웃으며 가볍게 목례를 하고 수업을 끝까지 참관했을 때에는 마친 후에 인사를 하며 수고와 감사, 응원의 말을 잊지 않으려 했다. 수석교사로서 수업 참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선생님들의 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다 보니 원칙을 정하기가 어려워 해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 수업 전 협의가 있었기에 수업을 참관한 것인데 그래도 수업 참관 후 수업을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충분히 알아주고 마음을 헤아려주며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다. 다만 여기까지 하기에는 체력의 한계가 있고, 오후 다른 일정이 없어야 가능하다. 아마 전국의 수석교사들 중에는 분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하루에 3명의 수업을 참관하면 수업자와 1:1 대화가 좋다면 적어도 30분씩 충분히 환대하며 함께 맘껏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교사 개인에 따라 허락되는 분들만 짧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환대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좀더 깊이 연구하고 의논하여 추진해볼 예정이다.

2학기에는 교사 그림책 연수도 계속되었지만, 학부모 대상 그림책 연수도 비대면으로 가졌다. 평소 학부모 대상 연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꼭 내가 강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학부모 연수를 하면 좋겠다고 늘 건의하고 제안을 드리는 편이다.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이라 감히 말하지 못했는데 신설학교라 비대면이라도 학부모회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결정에 따라 1학기 5월에 학부모회장단 비대면 회의 때 짧게라도 도움이 되는 연수를 부탁받게 되었다.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로 30분이 안 되는 짧은 연수를 했었다. 매월 계속된 교사 대상 그림책 오픈 강의를 토대로 학부모 그림책 연수는 금요일 오전 2시간씩 11월, 12월 2회의 비대면 연수로 진행되었다. 그림책 읽어주기와 그림책으로 자녀와 질문과 공감대화 나누기, 감정 읽기와 미덕으로 실천하기까지 학부모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교장선생님은 그 덕분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학부모 그림책 연수가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학부모 사서도우미들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해서 들으면서 흐뭇했다고 전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이런 것이 그림책 <치킨 마스크>에 나오는 '뭔가 내 안에 들어찬 기분'이리라.

사실 작년에 1년간 꾸준히 참모회의에 참석한 것도, 교사 연수와 학부모 연수를 월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한 것도 수석교사 12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가끔 교육과정 설명회 때나 어쩌다 한번 학부모 연수를 한 적은 있지만 2회 연속으로 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학부모연수를 늦게 시작하여 좀더 많이 하지 못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즐거움은 묘한 기대감과 설레임을 안겨다주었다. 그리고 올해 학부모독서동아리를 시작했을 때 작년 학부모 그림책 연수에 참여했었고 그때 너무 좋았는데 수석선생님과 함께 독서동아리를 하니 기대가 된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매일 아침 참모회의에 참석하면 거의 30분에서 1시간까지 회의가 이어져서 아침 시간에는 어떤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힘든 점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싫지는 않았다. 늘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 중요한 일들을 업무부장이나 선생님들로부터 전해들었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거나 선생님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절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학교 일정과 수석교사의 활동을 조절할 수도 있고 수석교사로서 할 일을 분명하게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어서 좋았다. 수석교사가 참모회의에 참여하는 것도 참 좋은 운영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는 수석교사로서 직무 수행 시 우선 순위가 분명해지므로 오히려 일을 하기가 편리한 점이 분명히 있다. 문제는 이것이 거의 전적으로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운 좋게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진 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작년 이맘 때 업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시기에 나는 한참 경남교육박람회 혁신교육관 기획위원으로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게다가 여름방학부터 처음으로 구성된 경남 수확문화관 수학교육소식지 편집 발간 업무까지 더하여 바쁜 교내 지원활동에 더 바쁜 시간이었다. 덕분에 업적평가 보고서는 3일 정도 걸려서 대충 만들어서 제출했고, 너무나 급박하게 작성하다보니 업적 평가 보고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처음 해 본 교내 지원활동을 ‘참모회의 참석 등 학교 교육과정 적극 참여’로 겨우 생각해내서 적을 수 있었다. 이것도 보고서에 한 번도 적어보지 않았던 내용이라 처음에는 전혀 생각해내지 못했었다. 어쩌면 그 한 마디가 2021년의 수석교사 활동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인지도 몰랐다. 업적평가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던지라 성과급을 몇 등급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예비교사 대상 사범 대학 강의를 하게 된 이후부터는 교직경력 평생 거의 없었던 조퇴를 줄줄이 하게 되었고 조금은 남다른 취미와 진로를 갖게 된 아이 덕분에 조퇴와 연가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인지 2021, 2022는 예전과 다른 등급을 받게 되었다. 성과급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끄럽거나 하지는 않다. 나름대로 충분히 내 역할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3) 수석교사의 존재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은 학교장의 의지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수석교사로서의 자존감도 영향을 받게 된다. 2022년에는 교장, 교감, 교무, 연구까지 모두 새롭게 바뀌고 학급 수 증설로 인해 복수 교감의 학교가 되었다. 새로 부임하신 교장선생님은 오랫동안 전문직으로 계셨던 분이래 수석교사에 대해 알고 계셨고 수석교사로서 많이 힘써달라고는 하셨으나 실제로 수석교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지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은 교감선생님도 마찬가지였다. 두 분의 교감선생님 중 한 분은 승진하여 부임해오셨는데 전임 학교에서 수석교사와 함께 근무했다고 하였다.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었으나 수석교사의 역할에 대해 나름 이해하고 계셨다. 그러나 다른 한 분의 교감선생님은 오래 전부터 개인적으로 인사 정도는 주고받던 사이였는데도 수석교사가 된지 13년째인데도 여전

히 ‘부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신다. 이전에도 가끔 만나면 늘 그렇게 불러서 언젠가는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도 계속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불편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부장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때 교감선생님은 알겠다고 답했고 이제는 가끔 ‘수석님’하고 부르기도 하지만 여전히 가끔은 ‘부장님’이라 부르기도 한다.

처음 두 분의 교감선생님을 뵙고 인사하고 교장선생님과도 인사 나눌 때, 전임 교무부장이 여러 가지 안내를 하면서 수석교사에 대해 작년에는 신설학교 2년차인 관계로 참모회의에도 참석하여 교감선생님과 힘을 합해 학교 조직과 시스템 정비에 노력하였고 연구부장의 업무나 교육과정 관련한 업무에 대해 코칭하고 도와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을 이야기했었다. 다행히 새로 부임한 교사 중에 연구부장 경력이 다년간 있는 선생님이 오셔서 연구업무를 맡게 되어 이런 저런 안내와 협의를 했던 역할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도 두 분이 시니 굳이 수석교사까지 합세하여 참모회의에 참석하고 협의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개인적으로 올해 고3이 된 아이의 뒷바라지를 할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하여 굳이 계속해서 참모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세 명의 관리자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교무실은 두 분의 교감선생님이 근무하게 된 관계로 책상과 컴퓨터 등 환경을 정비해야 했고, 게다가 작년에는 업무부장교사들이 교무실 앞에 있는 업무행정지원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올해는 교무, 연구는 교무실로 옮겨서 함께 근무하며 학교 일들을 바로바로 소통하고 의논할 수 있게 되었다. 업무전담팀도 작년보다 업무를 분산시켜 운영되었다. 자연스럽게 다른 학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규모 학교가 된 것이다.

이로써 수석교사가 되어 업적 평가 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으면서 처음 해 본 눈에 보이지 않는 교내 지원활동은 일 년 만에 끝이 나고 말았다. 아마도 학교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이가 고3이 되었어도 계속 참모회의에 참석했을 것이고 바쁜 가운데에도 여전히 학교의 여러 중요한 일들에 함께 참여하여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보다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아낌없이 나를 제공했을 것이고, 그만큼 조금은 더 쓸모있는 수석교사로 인정받았을 지도 모르겠다. 스스로도, 다른 이들로부터도.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로 인해 올해는 예상치 못하게 많이 힘든 시간이 되었다.

4) 선택권도 없고 존재감마저 상실해버린 곳에서 버텨내기

본교에 부임해오면서 좋았던 것은 학교 시설이었다. 신설학교니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2년차 학교라 아직 빈 교실이 많이 있었다. 수석교사로서 시범운영 1년에 이어 5년씩 2개 학교에 근무하였는데 수석교사실 마련이 항상 어려웠다. 수석교사 법제화를 맞이했던 전전임학교에서는 전담교사들과 같이 연구실을 사용했고, 전임학교에서는 3층의 작은 자료실에서 책상을 놓고 근무하다가 4층 맨 끝 연구실을 비워서 단독으로 된 작은 수석실에서 2년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2년째 되던 해 코로나로 인해 수석실은 정말 외로운 섬이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멘토링 장학만 겨우 수석실 근처 빈 교실에서 잠시 운영할 수 있었다. 수석실을 특별히 갖고 싶은 욕심은 없었지만 신설학교의 여분의 교실이 많은 것은 분명 특별한 느낌을 갖게 했다. 코로나가 끝나면 교사연수실을 운영하여 선생님들과 많은 활동을 하고 싶다는 기대로 2개의 미술실 중 1개를 교사연수실로 팻말을 바꾸고 예쁜 책상을 주문하여 들여놓고 예산이 부족하여 의자는 강당에 있는 의자를 가져와서 사용했다. 그리고 수석교사실은 미술실 안쪽에 준비실이었던 곳을 책상과 컴퓨터를 놓고 갈 곳 잃은 영어실 학습 자료장을 가져와 마침 거기에 있던 높은 장식장까지 활용하여 책을 넣고 짐을 놓았다.

교사연수실은 1학기에는 텅 비어 있어 마음이 아팠으나, 2학기 들어 11월 초 교내 회복적 생활교육 15시간 연수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무척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교사연수실이 넓다보니 서클 활동도 놀이도 마음껏 할 수 있었다. 그리고 11월 말에는 그림책 수업모임인 <공감대화>의 대면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하여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이어서 경남교육박람회와 많은 프로그램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었지만 내가 진행하는 <행복나눔 초등교사 성장교실>과 <학생자치 퍼실리테이션>은 교사연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다. 비록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은 하지 못했지만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참석자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뿌듯한 시간이었다. 이제 2022년에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교사연수실에 와서 수업협의도 하고 더 많은 연수도 개최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간절했다.

그런데 올해 5월, 교사들의 공간으로 지켜온 곳인데 코로나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전담교사들의 수업이 특별실에서 진행되자 수석교사로서 도덕 수업을 교실에서 하고 있던 나에게 교사연수실에서 도덕 수업을 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왔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학생들이 사용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지만, 웬지 내키지가 않아 처음부터 흔쾌히 답을 하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딱히 다른 수도 없고 또 굳이 계속해서 반대를 할 이유도 없어서 승낙을 하고 교사연수실에서 도덕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좋아했다. 교사연수실에 붙여두었던 지난 연말 성찰 워크숍 시간에 했던 결과물들을 떼어내고 각 교실에서 진행했던 약속 정하기 퍼실리테이션 활동 결과물을 벽에 붙였다.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점점 수업이 기형이 되어갔다. 특별실에서 수업해보는 것이 처음이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안게 되었다. 1개 반씩 수업이 끝날 때마다 예상하지 못한 각종 쓰레기들과 책상 위 낙서들로 매일 청소를 해야만 했다. 1.5실의 교사연수실은 꽃이나 화분이 예쁘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는데 아이들이 한번 다녀가고 나면 책상과 의자도 흐트러져있고, 쓰레기가 튀구는 곳이 되었다. 1학기부터 조금씩 일상의 회복이 되면서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하여 넓은 교사연수실을 매일같이 청소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수업 후 점심 먹고 나면 예비교사 강의나 컨설팅 준비하여 나가려면 마음이 급하였다. 처음부터 교사연수실 사용에 대해 안내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는 아이들도 깨끗하게 사용하고 괜찮았는데 한 달쯤 지나자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점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다. 7월 초, 갑자기 가상스포츠교실을 구축한다고 장소를 물색하던니 좀 전까지 부장협의에서는 가상실습실이나 부장회의 후 학년부장들끼리만 회의 시간을 갖더니 갑자기 교사연수실을 가상스포츠교실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다. 차라리 내가 있는 자리에서 협의하고 결정되었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과 서운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도 일어났다. 그 일을 세세히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일로 수석교사로서는 처음 겪어보는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한동안 많이 힘들었다. 하필 개인적으로도 고3 아이의 진로 문제에 난항을 겪으면서 힘든 시기였기에 대수롭지 않게 극복하기가 더욱 힘들었다. 나를 마음 조절을 잘해온 편이었는데 모처럼 어려움을 겪고 나니 마음을 여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게다가 무거운 책들을 옮기다가 손목과 허리에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쉽게 낫지 않고 있다. 7월에 가장 바쁜 날 아침에 갑자기 짐을 옮겨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 나를 도와준답시고 많은 선생님들이 와서 짐을 옮겨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짐을 옮기게 되었는데 오히려 내게는 매우 수치스럽게 느껴졌다. 정리되지 않은 짐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나의 온몸이 발가벗겨지는 것 같았다. 지금도 그 순간을 떠

울리면 아찔하고 숨이 턱 하고 막힌다. 무거운 책을 옮기느라 더운 여름에 땀흘려가며 애써주신 것이 눈물 나게 고마운 일임은 분명한데 왜 내 마음은 차갑기만 한 것일까?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싸늘함이었다. 하지만 애써주신 선생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메시지로 보냈다.

설상가상으로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연이어 일어났다. 부장회의가 있어서 회의실로 갔더니 아무도 없었다. 바로 옆 교무실에 가서 물으니 연구부장이 회의가 취소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옆에서 교무부장이 그것을 부장단톡방에 올렸다고 했다.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부장단톡방이라고? 이렇게까지 내가 왕따였나? 어떻게 지금까지 부장단톡방에 나를 초대하지 않을 수가 있지? 교감선생님은 그렇게 나를 부장님이라 부르셨는데 말이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구나.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건가? 교무부장이 사과를 했고 알겠다고는 했지만 내 마음은 전혀 사과를 받을 수가 없었다. 속 좁게 뭘 그러냐고 할 것이다. 사과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주위담기 어렵다. 교장선생님과 두 분 교감선생님에게 가장 서운했다. 수석교사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수석교사가 부장단톡방에서 아무 말도 없고, 대답도 없고 학교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욕을 했을까.

세 건의 일들을 차례로 겪으면서 처음으로 수석교사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학교에 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때는 내 마음이 힘들어서였는지 그것이 왜 그리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로 인해 수석교사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수석교사는 과연 학교에서 어떤 존재일까? 수석교사라고 떠받들어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 오히려 애매한 위치, 정착되지 않은 존재감에 늘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수석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불식시키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큰 소리 내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 좋은 거니까 하는 생각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수석교사 첫 연수 때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었다. 그것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했던 것 같다. 그래서 10년을 넘게 노력해왔다. 아직 수양이 덜 되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석교사는 아무런 힘도 없이 이렇게 늘 굽신 거려야만 하는 것일까? 정말 수석교사는 어떤 선택권도 없는 것일까? 수석교사니까 선생님들의 요구나 학교의 요구에 무조건 수용하고 따라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소수의 존재라고 존중받지 못해도 되는 것인가? 누가 누구에게 굽신거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정당한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 수석교사 초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또다시 반복하여 겪게 되는 것이 힘들었다. 물론 중간중간에도 수석교사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지만 이렇게 심각해본 적은 거의 처음이었다.

사실 교사연수실은 공적인 공간이니까 당연히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내어줄 수 있고 그래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사들을 위한 공간은 사라지고 말았다. 내가 그 공간을 더 멋지게 이용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과 30명 정도의 교사 연수를 할 공간이 없어진 것이 못내 아쉬웠다. 물론 연수 공간이 필요하다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도서실을 이용해도 될 일이다. 하지만 도서실 역시 교사를 위한 공간은 아니다. 학교 구성원의 중요한 존재인 교사들을 위한 연수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계 전체가 오로지 학생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그 곳에서 성장의 삶을 이어가는 교사들은 여전히 크게 안중에 없다는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학교는 학생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교사들의 삶도 학교에 있기 때문에 분명 교사를 위한 교실 공간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각의 온도 차이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학교에 교사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에 그냥 혼자 생각으로 끝나고 말지만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았다. 언젠가 학교에 유희공간이 있는 곳에 근무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교사연수실이 아니라 교사북카페를 운영해보아야겠다.

각설하고, 이번 일련의 일들에서 의문을 갖고 고민했던 것은 존재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인 것 같다. 의견은커녕 존재 자체도 인정받지 못하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기만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었다. 잘못 끼워진 단추가 있다면 풀고 다시 끼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에서 합의 과정은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 다만 의견을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마도 상황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시고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신 수석교사들이 분명 또 계실 것이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감정이다. 이러한 갈등을 잘 해결해나가는 것도 수석교사의 역량이지만 모든 것을 수석교사의 역량으로 규정짓는 강요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수석교사도 하나의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상담교사의 컨설팅을 해주면서 상담교사로서 힘든 점에 대해 부족하나마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며 격려를 해주었던 것처럼 수석교사도, 교감도, 교장도 모두가 존재로서 인정받고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존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누구든 감정적으로 외로운 섬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힘들었던 여름을 겨우겨우 버텨낼 수 있었다.

3. 수석교사를 부르는 곳이라면 기꺼이

1) 수석교사의 필수 직무 교내 수업컨설팅, 의무가 아닌 필요이기를

올해 업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교내 수업컨설팅을 공식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보니 수업협의 23회, 수업참관 14회이다. 수업사전협의를 대부분이지만, 수업후협의를도 있다. 1학기 동료장학 공개수업 때는 학년별 혹은 전담교사와 비교과전담으로 나누어 의도적으로 수업사전협의를 실시하였다. 이는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수석교사 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해왔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보면 선생님들 중에는 이것이 싫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동료장학 공개수업 역시 교사라면 모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수석교사 없는 학교라면 특별히 외부의 수석교사나 컨설턴트를 초빙하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전학공 협의로 진행하게 될텐데 수석교사가 있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뒤집어보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싫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늘 불편했었는데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늘 컨설팅보다는 함께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최대한 애써왔다. 이러한 나의 노력을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나 특별히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나친 간섭보다는 최대한 선생님들의 수업 아이디어를 존중하면서 놓치는 부분만 챙겨드리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는 자신의 수업에 대해 확인받고 싶어하거나 도움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수업후협의를 조금 더 진지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2) 교수연구지원 활동의 범위를 넓혀보자

수석교사로서 교육과정과 수업에 관한 자료만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교사들의 마음이 조금 더 안정을 찾고 여유를 가지며 자신을 회복하도록 도와서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요즘처럼 필수적인 대면 연수가 아닌 다음에는 거의 대면 연수를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여서 그런 선생님들에게 지나친 강요가 아닌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권

유를 해야할 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특히 일상 회복으로 인해 2년 동안 거의 중단되었던 많은 학교 교육 활동과 행사들을 실시하게 되면서 선생님들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거 좋다, 저거 좋다며 자꾸 모여라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었다. 한때는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한 적도 있으나 요즘은 이것도 저작권 문제도 있어서 언제부턴가 이용을 하지 않게 되었다. 저작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 자료를 직접 만들었어도 가급적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것이 교내 메신저 프로그램이다. 다만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어서 그때그때 기록해두거나 저장해두지 않으면 내가 어떤 내용을 안내했는지 모를 때가 많다. 올해도 3,4,5,6월의 기록은 이미 삭제되어 몇 개 중요하게 기억에 남는 것만 정리해보니 총 26회의 자료를 공유하였다. 양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나누었던 내용들을 확인해보니 나의 수업을 정리하여 나누기도 하고, 학급에 적용해보면 좋을 것들을 정리하여 나누기도 하였다. 또 선생님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온라인 무료 공연 관람을 안내하기도 하고, 시를 안내하기도 했다. 본교 특색교육활동인 에코리더 프로젝트와 연관된 기후위기환경교육 관련 자료들을 공유하기도 했고, 수학교육 관련 수업내용이나 연수를 안내하거나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연수, 수업나눔행사 등을 안내하였고 수업에 쓸 수 있는 활동 자료나 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때로는 격하게 반응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아무런 답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 교직원 다모임에서 선생님들께 자료 나눔을 저작권 문제나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하지 않고 교내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소음이 될까 염려되어 너무 자주 많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바란다고 안내드린 바 있다. 자료 나눔의 방법이나 지원 활동에 대해 내년에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올해 동료교원 능력개발평가가 없어서 교내 동료교원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문항을 주관식으로 넣어 보았다. 무엇이든, 누구든, 어디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싶은 것이 수석교사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학예 발표회를 관람하면서 무대 위 피아노를 옮길 때 달려가서 작은 손이라도 보태주고 아낌없이 박수쳐주며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응원해드렸다. 학년별로 운영하였는데 시간이 안 되어 모든 학년을 다 관람할 수 없었기에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서 어느 학년에서는 오해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서 농업인의 날로 운영하면서 학생자치회에서 행사를 운영하였는데 이를 담당하신 분이 저경력교사여서 특히 더 많은 격려를 해드리고 싶었다. 말쑥씨 글쑥씨가 부족하다보니 요즘 겪는 고충이 메신저에 글 쓰는 것이 쉽지 않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여 격려의 말을 적어보냈는데 다행히 선생님도 좋아하셔서 마음이 따뜻해졌고 감사했다.

교내 연수 및 자료 공유(전 교원, 전 교직원 대상)

순	시기	주제 및 내용	
1	2.22.화	새학년맞이 교사 교육과정 디자인 온라인 강의 영상 자료 제작 공유	    
2	3.02.수	그림책과 퍼실리테이션으로 학급 비전 만들기 영상 자료 제작 공유	
3	3.03.목	3월 학급 세우기 활동 PPT, 활동 자료 5종 공유	
4	3.04.금	학년 교육과정 재구성 2학년, 3학년 예시자료 공유	
5	4.26.화	수석교사 공개수업 자료 나눔	
6	6.09.목	에코리더 프로젝트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림책과 자료집 공유	
7	6.21.화	그림책 <나무가 자라는 빌딩> 에코리더 프로젝트 수업나눔	
8	7.05.화	에코리더 프로젝트 자료 안내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9	7.12.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행복교육 기초워크숍 안내	
10	9.20.화	전문적 학습공동체 2학기 첫 시간 마음열기, 생각나누기 소통도구 공유	
11	9.27.화	피라미드 토론 활동판 자료 공유, 그림책 모임 및 전학공 요청 안내	
12	9.29.목	제2차 환경교육포럼 유튜브 중계 안내	
13	10.06.목	경남 학부모지원센터 하반기 학부모아카데미 온라인강의 안내(최재천교수)	
14	10.11.화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부모공개수업 사전협의회 활동 안내	
15	10.13.목	2022.초등 수업나눔한마당 신청 안내	
16	10.13.목	학부모공개수업 컨설팅 안내, 경기교육청 출근길 직무연수 안내	
17	10.25.화	공개수업 감사와 격려의 말, 수학문화관 수학교육 카드뉴스 자료 안내	
18	10.27.목	아이톡톡 스마트단말기 활용 수업연수 안내	
19	10.31.월	그림책 모임 안내 및 네이버TV 온라인 공연 관람 안내	
20	11.04.금	이태원 참사 애도와 위로의 그림책 읽어드림 유튜브 영상 제작 공유	
21	11.08.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총론,각론,방향과 기준 영상 자료 안내, 2022.김해교육 나눔 한마당 신청 안내	
22	11.08.화	경남토론교육연구회 수업민주주의 러닝퍼실리테이션 수업설계 워크숍 안내	
23	11.09.수	수요 온라인 공연 무료관람 안내, 수학교육 11월 연수 2건 안내	
24	11.15.화	러닝 퍼실리테이션 수업설계 워크숍 내용 공유-수학과 참여협력형수업	
25	11.21.월	플꽃 시인 나태주의 <너처럼 예쁜 동시 따라쓰기> 동시 공유 및 캘리그래피 따라쓰기 방법과 자료, 패들렛으로 녹음하기 안내	
26	11.22.화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수학과 참여협력형 수업(2)-수학과 질문 수업	

유튜브 영상 제작 공유 - 교사교육과정 디자인(2.22.), 그림책 퍼실리테이션으로 학급비전 만들기(3.2.), 애도와 위로의 그림책 읽어드림(11.3.)



<https://youtu.be/SJ2GoxEL2Ck>



<https://youtu.be/LUPaakh9fsE>



<https://youtu.be/zAwF9fWF5v0>

3) 교내 학부모독서동아리 진행

교감선생님에게 학부모독서동아리 운영을 제안하였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시면서 새로 부임하신 사서선생님께도 안내를 하셨다. 4월에 사서선생님과 의논하여 계획을 세우고 5월에 모집하여 6월에 밴드를 통해 처음 인사를 나눈 후 도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7.1. 첫 모임을 시작으로 월1회씩 학부모독서동아리 진행을 맡아 대면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서교사와 16명의 학부모

모들과 함께 대면으로 시작한 것은 큰 시도였고 도전이었다. 코로나 이전에 학부모독서동아리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도 학부모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는데 이번에도 다행히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이 좋아서 무척 감사하다. 특히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을 읽고 칭찬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였을 때 아동에게 칭찬하는 일이 어른으로서 내 마음에 들어야 칭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안내하자 아하!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들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으며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평가하는 언어인 칭찬이 아닌 격려로 실천해보겠다는 다짐들을 나누었다. 세 번째 도서인 <마지막 거인>은 큰 울림을 주었다고 했다. 독서토론을 시작하는데 먼저 좋은 책을 소개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듣기도 했고, 독서토론 후에는 혼자 읽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질문과 생각을 나눌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감사 인사를 듣기도 했다. 학부모님들도 성장하고 싶어 했고, 실천하고 싶어 했다. 처음으로 소그룹 질문과 토론도 진행했는데 반응이 무척 좋았다.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걸어가며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이 감사했다.

본교에도 독서교육에 관심이 높고 역량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 교사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계셔서 굳이 나까지 할 필요가 없어 학부모독서동아리 운영에 집중할 수 있었다. 기회가 되면 교내 선생님들과도 같이 독서토론을 해보면 좋겠다.

- * (7월)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 * (9월)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
- * (10월) 마지막 거인
- * (11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 * (12월)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

4) 김해교육지원청 전문적 학습공동체 리더양성 연수과정 설계

올해 2월, 김해교육지원청 전문적 학습공동체 리더양성 추진단으로 위촉받아 1년간 현장지원형 학교 밖 전학공을 운영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수업혁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학공 리더교사 양성 연수과정을 설계하는 과제를 안고 9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전국의 연수 프로그램들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우리가 원하는 연수과정을 설계하였다. 비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수 시기가 늦춰지고 연수 과정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6차례의 수정을 거듭한 끝에 겨우 6월에 연수생을 모집하고 7월 비대면 연수 8시간, 8월 대면 연수 8시간을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대면 연수는 퍼실리테이션으로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마도 이 연수 과정을 보다 심화하여 내년에는 좀더 좋은 연수 과정을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경남수학문화관, 김해수학체험센터 수학문화아카데미 대면 학부모 강의

학부모 강의 중에서 특히 좋았던 것은 수학교육에 대한 강의이다. 나도 같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녀의 수학 공부와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느꼈던 수학교육에 대한 생각과 도움 내용을 정리하여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강의 주제는 수학적 사고를 성장시키는 대화법(1), (2), 수학에 대한 자존감 회복을 돕는 격려대화법 등인데 수학에 대한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자녀들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안내해드리고 질문과 답으로 진행하거나 정육면체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자녀들이 애써도 잘 안 될 때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하여 격려하는 대화를 연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학적 문제의 어려운 장면에 대해 부모로서 이해하는 방법과 자녀가 수학을

잘하기 이전에 싫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될 말이나 해주면 좋은 말들을 안내하고 연습해보았고,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아이가 사고하고 아이의 방법대로 수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과정에서 안 되는 분을 찾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는 진짜 수학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안내해드림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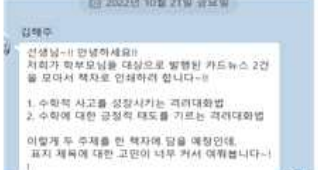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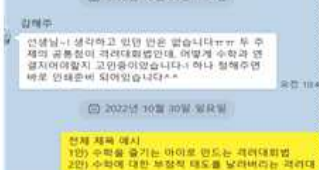


6) 수학교육 현장지원단의 수학교육소식지 발간지원단 카드뉴스 제작 활동 및 ‘수학을 즐기는 아이로 기르는 격려대화법’ 소책자 발간

오랫동안 수학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왔는데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어서였다. 단순히 수학문제를 풀이하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수학 자료를 만들어 수학을 체험하며 개념을 이해하고 생각하도록 수업을 연구했다. 수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참여해왔고, 수석교사로서 수학교육 TF팀 활동 및 수학교육 개선 토론편리테이션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수학수업의 어려움과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 저하로 인한 선생님들의 고민을 듣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스러운 마음에 경남수학문화관에 연락하여 의논을 하였다. 그리고 격주로 수학문화관과 수학수업에 관심있는 교사들과 함께 수학수업나눔 활동을 시작하여 1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교사들의 수학수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학생들의 수학공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한 정보 공유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수학교육에 대한 다양한 활동이나 수학수업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고 공유하는 수학교육소식지발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지원단을 조직하는데 도움을 요청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1. 2022.경남수학교육소식지 편집.발간: 4월~12월 10종 발간(11월 현재 9종, 12월 1종 발간 예정)				
				
				12월 예정

1. 수학교육카드뉴스 편집 발간한 2종을 묶어 11월, '수학을 즐기는 아이로 만드는 격려대화법'으로 소책자 발간 -경남수학문화관,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르는 격려대화법(1), 수학적 사고를 성장시키는 격려대화법(2) 원고 내용을 인쇄 출력하여 수학문화관을 방문한 학부모들에게 배부. 반응이 좋아 11월 소책자 발간하여 배부함

			
---	---	--	---

수학교육소식지발간 지원단은 작년 하반기에 조직하였고 어떤 유형으로 소식지를 만들지 의논하고 구상하여 카드뉴스를 3회 발간하였다. 바쁜 시간을 틈타 밤늦은 시간에 비대면으로 회의하기도 하고 수업을 마친 오후에 회의하기도 하며 처음 해보는 카드뉴스 작업을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겨우 만들 수가 있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지원단 인원을 보충하고 계속해서 카드뉴스를 발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보다 본격적인 발간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4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총 9종의 카드뉴스를 편집하고 발간하였다.

이중에서 5월, 10월의 카드뉴스는 평소 수학을 더 잘하는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들의 수학적 자존감을 높이는 격려대화법을 중심으로 한 강의 내용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다. 우리가 발간한 카드뉴스가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고 바쁜 시간 가운데 겨우 이루어진 작업에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경남수학문화관에서 이를 인쇄 출력하여 수학문화관을 찾아오는 학부모에게 배부하였는데 그 반응이 좋았으며 2개의 카드뉴스를 묶어 '수학을 즐기는 아이로 만드는 격려대화법'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것은 처음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지만 학부모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되었다.

7) 2022.경남 고교 학생회장단 리더십 연수 강사

약 5년 전부터 퍼실리테이션 연구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7월 말, 경남교육청에서 고교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리더십 연수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데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였다. 특히 메타버스를 활용하였는데 메타버스 내 경남학생의회에 들어가서 권역별로 나누어 1차 회의를 하고 그 다음 날 전체 회의를 실시하였다. 지역별로 나누어 학생회장단 학생들과 함께 공약 실천을 위한 민주적 방안, 교내 학생 자치 활성화 방안 등을 메타버스와 구글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하여 DVDM, 창증감제 등의 다양한 기법으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고교 학생회장으로서 학생회를 운영에 대한 이해와 의지를 높였다.

2022.경남 고교 학생회장단 리더십 수업. 7.26.화~28.목 8시간 (메타버스 내 경남학생의회)



2022. 7. 28(목) 09:00 ~ 15:30
경상남도교육청

연수 진행 단계				
시작하기 - 메타버스 플랫폼 접속 및 등록 - 입소식 ~ 09:10	특강 - 리더십 프로그램 - 마이크로소프트사 09:10~10:00	만남 - 교육감과의 만남 10:00~10:10	유식 10:10 ~ 10:30	토론 1 - 회의 안내 - 마음 열기 - 공약실천 민주적 방안 논의 10:30~11:30
유식 11:30 ~ 11:50	토론 2 - 교내 학생 자치 활성화 방안 논의 11:50~12:50	점심 12:50 ~ 14:20	토론 3 - 지역협의회 회장 선출 - 지역별 고교 협의체 운영 방안 - 소감 나누기 14:20~15:20	마무리 - 퇴소식(기념촬영) - 설문조사 ~ 15:30



2022 경남고교학생회장단 리더십 연수
METaverse

토론 주제

01. 공약 실천을 위한 민주적 방안
10:30~11:30

02. 교내 학생 자치 활성화 방안
11:50~12:50

03. 지역 협의체 운영 방안
14:20~15:20

토론 1] 공약 실천을 위한 민주적 방안 **Q4. 공약실천 어려운 점은?(Difficulty-난관)** 11:10~11:20(10분)

[순서] 의견 적고 발표(학생) - 유목화(진행자) - 다중 투표(학생1인2표) - 1-3순위 정하기. 재언(1,2,3)



나만 최고
현실과 이상은 다름
중이 둘 *
실현 불가능한 공약 *
이익, 의견 대립 *
나랑에 *
심현 불가능 공약 *
이상과 현실 *
정정된 자질
교사판권조사 간섭
강제 투표 *
의지 부족 *
경제적 부담, 예산
예산
실 * 개인주 *
2교장선생님의 고민
무계획
우관심 *
여유상차

8) 2022.경남교육청 독서 인문소양교육 컨설턴트

경남교육청의 독서 인문소양교육 컨설턴트를 지원하여 독서 관련 인문소양교육을 위한 컨설팅 요청에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단위학교의 비전과 특색교육을 살린 독서교육에 대해 학생들의 독서력 검사, 독서수업, 인문소양교육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독서축제 등의 행사 운영 내용과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해 답하거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학생들의 즐거운 책 읽기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경험으로 구성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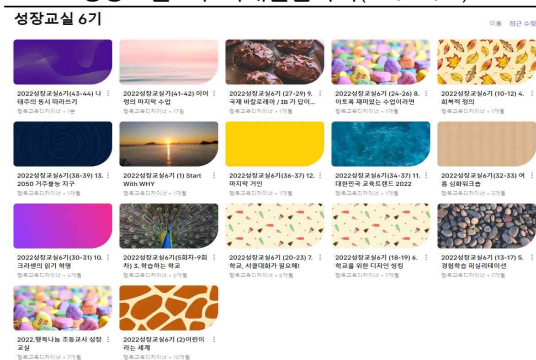
9) 2022.행복나눔 초등교사 성장교실 6기 운영

<행복나눔 초등교사 성장교실>은 자발적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201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1년 단위로 성장교실 지원서를 받아 모집하여 1기는 20여명으로 시작하였고 이중 17명이 졸업하였다. 2기는 20명이 훨씬 넘는 과밀학급을 형성하였다가 3기는 18명으로 운영. 4기인 2020년은 코로나 첫해로 갑자기 비대면으로 변경하여 겨우 운영할 수 있었다. 2021년 5기도 8명이 지원하여 비대면으로 운영하면서 격주 토요일 모임을 매주 토요일 오전으로 진행하였는데 가을부터 수업친구들의 요청에 따라 새벽6시~10시에 모임을 운영하였다. 2022년 6기는 5기 수업친구 전원이 다시 참여하였고 새로 입학한 분들과 함께 전체 1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장교실6기. 2022.1.8~12.17. 월3회 토 아침6시~10시 비대면, 월1회 토 10-16시 대면 운영. 수업탐구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여름심화워크숍 2일, 2022.수업나눔한마당 발표 등 총 48회 운영



성장교실6기 비대면입학식(01.08.토)



도서별 패들렛 활용




2022.초등 수업나눔한마당 10.22.토 (제3마당)
주제: 교사 성장교실의 배움을 교육활동으로 실천하기

10) 그림책 수업모임 [공감대화] 모임과 그림책 <마지막 거인> 슬로리딩 6학년 교과 융합프로젝트 수업 디자인 개발

그림책 수업모임 [공감대화] 모임은 2012년 수석교사 법제화 시기에 평소 창의성수업에 관심이 높았던 후배 교사들과 함께 창의인성수업을 연구 실천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림책 공부를 하

고 비폭력대화를 공부하며 창의인성을 기르는 그림책 수업을 함께 전개하였다. 특히 ‘공감’을 처음으로 수업에 도입하여 다양한 공감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 활동으로 창의인성수업연구회 전국 최우수연구회로 인정받아 유럽연수도 다녀올 수 있었다. 지금은 경남교육청 학교연합교사 독서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로 계속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림책을 함께 읽고 슬로리딩을 하며 그림책 수업을 연구하고 교실에 적용 실천하고 있다. 비대면의 시기에도 꾸준히 활동하였는데 작년에는 ‘그림책 격려수업으로 회복탄력성을 기르는 행복 교실’을 주제로, 올해는 ‘질문과 공감대화를 통한 그림책 인문학 수업’을 주제로 정하고 특히 그림책 <마지막 거인>으로 슬로리딩을 연구하였고 6학년 교과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6학년 2학기 교과 융합프로젝트 수업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회원들은 이를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도덕 교과를 전담하고 있어 교과 융합으로 수업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는 6학년 학생들과 슬로리딩으로 함께 읽었고 올해는 누리교실에서 슬로리딩으로 함께 읽고 있다. 우리가 개발한 <마지막 거인> 수업 디자인은 초등 수업나눔한마당에서 나눔하였고, 12월 말에 워크숍을 통해 적용한 수업을 나눔하려고 예정 중이다.

**그림책 <마지막 거인> 슬로리딩 6학년 교과 융합프로젝트 수업 디자인 개발
2022.초등 수업나눔한마당(10.21.금. 비대면 수업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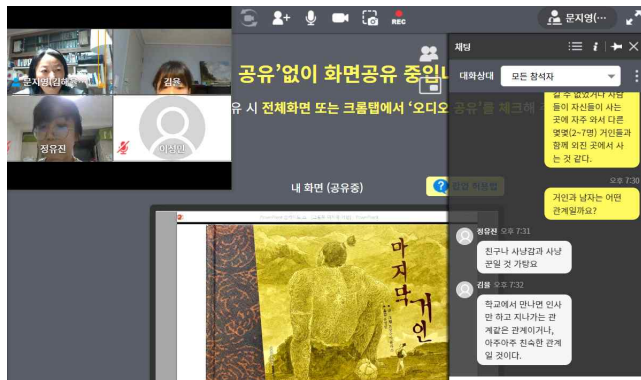
-그림책 『마지막 거인』 깊이 읽기의 흐름(전체 차시 및 연계 교과는 내용 분석하여 디자인 확정)			
차시	주제	학습 내용 및 활동 방법	
1	읽기 전 활동 (그림책 표지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목에 가린 채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것 이야기 나누기 -그림책 제목 떠올려보기 -그림책 표지 전체 읽기 -그림책 내용 상상해보기 -그림책 독서공책 준비하기 	
2	읽기 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책 속지의 문장 읽고 생각 나누기 아! 너무도 익숙한 그 목소리가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니?” -그림책의 들어가는 말 읽어보기, 그림책 전체 훑어보기 -그림책 읽기 방법 의논하기(1명씩 돌아가며 소리내어 읽기, 모둠 읽기, 그림 읽기, 단어의 뜻 알기, 문장 이해하기, 나의 감정과 인물의 감정 찾기, 질문 만들어 이야기 나누기, 토의토론, 색칠활동, 미덕의 보석 찾기 등) 	

그림책 <마지막 거인> 수업 디자인										
차시	구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도덕	실과	
1	읽기 전		1) 제목 가리고 그림보며 떠오르는 것 이야기 나누기 2) 제목 떠올려보기 3) 내용 상상하기							
2-3	8-13쪽 거인족 탐사 계획	6단원 추론-거인의 크기 고래상냥, 말레이시아 6-국05-04] 속임수 관련 경험을 이야기 6-국03-05] 절대로 팔지 않을 물건에 대한 글쓰기(초기심, 당혹감, 긴 여행)	10p. 6-수04-04] 이의 깊이를 재어보고 비례식을 이용하여 거인의 키 예상하기	6-사07-01] 말레이시아 위치 찾기(지도, 축척) -서섹스, 캘커타, 마르타랑,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위치 찾고 이동경로 그려보기 6-사07-04] 동인도회사, 영국무역-인간생활, 자연적인 문적 요인		6-음01-05] 배가 출렁하는 장면이 어울리는 음악 찾아 감상하기				
4-5	14-19쪽 인도 도착	6-국03-04] 성실하고 과학적인 여정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물품에 대해 주장하는 글쓰기		6-사07-01] 캘커타, 인도, 일본, 광둥, 실원관, 미얀마, 중국 등 찾기	6-과04-02] 옷차림 등으로 계절 예상하기 -겨울 갑판 위에서 별을 몇 시간 가량 바라보았을까? 별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14p. 음01-05]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 고르고 감상하기 -가슴을 예민한 노래		6-도04-01] 긍정적 태도 경청 듣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 6-도03-03] 6-도03-01] 일수일, 합법적인 무역		6-실03-02] 귀중한 시간을 허지 않게 않으려면? 시간 관리 방법
6-7	20-29쪽 거인족 찾기 탐험	6-국03-05] 고행 6-국04-05] 문장 호응 (~거들도 있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기수를 채 1분도 ~ 등)	6-수03-04] 총 두 자루와 화약 한웅, 불 소 3마리와 말바리를 변형하여 비례식 학습	6-사07-02, 사07-03] 정글, 이끼, 인도 등 위치, 임토특경, 기후특성 알아보기		6-음01-01] 호랑이가 위험적인 소리 내지 않고 사냥하는 장면이 어울리는 음악을 리듬악기로 표현하기	6-미02-03] 수채화(지리화)의 수채에 있어 어떤 통식물 그리기	6-도04-01] 긍정적 삶의 태도		

11)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 그림책 수업 실시

누리교실 수업을 하게 된 것은 그림책 공감대화 수업과 슬로리딩을 할 수 있어서이다. 여름방학 중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 수업을 통해 그림책을 함께 읽으면서 한참 힘들었던 내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혼자 그림책을 읽는 것보다 선생님들과 함께 읽는 것이 더 좋고, 그것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는 것이 더 좋다. 특히 교과 수업과 연계한 그림책 수업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읽는 것이 더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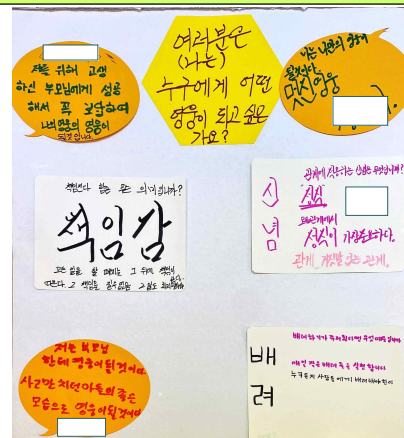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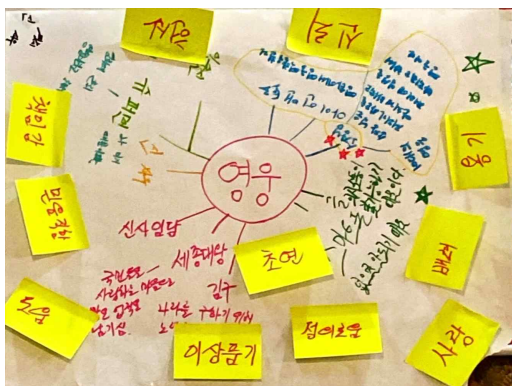
온라인 누리교실 수업-그림책 슬로리딩



12) 학교 밖 청소년 책 읽기 수업(북 퍼실리테이션) 무료 봉사

여름방학 중에 북 퍼실리테이션 자격 연수를 이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9월부터 창원교육청과 연계한 학교 밖 청소년 책 읽기 수업을 북 퍼실리테이션으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모두 중등교사들로 초등은 내가 유일했다. 1회당 3시간 수업이 기본이지만 2시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말과 행동이 다소 거칠기도 했지만 마음이 여린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고 집중이 깨지지 않도록 팀 인원을 최소화하였다. 책 읽기를 힘들어하여 소리내어 읽기를 하면서 점점 내용에 관심을 갖고 몰입하는 모습에 몽클했다. 인물의 감정 찾기, 책 속 장면과 유사한 자신의 경험과 감정 나누기, 생각 나누기, 미덕의 보석 언어로 실천할 점도 찾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기 위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음을 깨닫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2022. 학교밖 청소년(중고등학생)을 위한 책 읽기 수업(북 퍼실리테이션)



이 활동은 강의료가 없는 온전한 봉사활동이다. 강의료는 없지만 다행히 출장비는 받을 수 있으니 충분하다. 이젤 패드, 포스트잇, 매직 등은 기본 활동 도구로 준비해주었고, 미덕카드, 감정카드, 생각기록지, 캘리그래피 펜과 용지 등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 있을 때 있는 자료를 챙겨갔다. 강의료 대신 얻게 되는 것은 “보람”과 “뿌듯함”이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수석교사, 아니 교사들이 기꺼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솔직히 중고등학생들 토론 캠프나 학생회장단 리더십 캠프는 여러 번 진행해봤지만 그 학생들과는 조금 많이 다른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라 활동이 쉽지는 않았다. 중등선생님들도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셨다. 나 역시도 계획했던 대로 다 되지 않아서 인성교육처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실천으로 삶의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창한 목표를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게 많은 성장과 배움의 값진 시간이 되었다.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고, 문해력과 사고력, 정서적 감성 등을 기를 기회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나의 부족하지만 작은 재능을 봉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뜻깊은 일인가. 이런 봉사의 기회를 얻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덕분에 화요일 전문적학습공동체 시간에 교내 선생님들과 함께 활동할 시간을 갖지는 못했지만 선생님들께 학교 밖 청소년 책 읽기 수업한다고 안내드렸을 때 한두 분이라도 분명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분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이것도 내 욕심일 수는 있다. 교내 선생님들 중에도 수석교사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3회 중 2회만 수업하고, 1회는 참여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 나눔할 자료 만들어 나눠드리며 선생님들 챙기려 애썼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의 지원이 미흡하고 관심도 매우 적다. 나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잘 몰랐으니까. 하지만 알게 된 이상 모른 채 그냥 있을 수만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 비록 부족함은 많았지만 올해 가장 의미있는 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법무부와 연계하여 창원 지역 이외 지역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들었다. 12월에 이들과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겨울 방학 동안 북 퍼실리테이터로서 역량을 기르는 데 노력하여 내년도에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알차게 학교 밖 청소년 책 읽기 수업 봉사를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3) 2시간 이상 먼 거리 학교와 신규교사 수업 컨설팅과 전학공 연수 묶음 지원

아주 가끔 수석교사 없는 군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연락이 올 때가 있다. 남해가 그렇고, 하동이 그렇다. 가까운 지역에 수석교사들이 계셔서 그 분들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계속적인 요청이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경우는 거절하기가 어렵다. 하동에 위치한 A 학교는 자동차로 2시간이 20분 가량 소요되는 거리의 학교이다. 다행히 코로나 이전부터 공사하는 구간의 도로가 완공되어 다소 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오전 수업을 마치고 한번에 2시간 넘는 거리를 운전해서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코로나를 겪고 난 후 신체 능력이 떨어져서인지 생각보다 많이 피곤했다. 지리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겨우 주차를 하고 나니 예상 시간보다 더 많이 걸렸다. 신규교사 수업참관과 수업협의를 진행하고, 분교 선생님들까지 참석하신 전체 연수도 진행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의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거의 3시간이 넘게 걸렸다. 배도 고프고 휴식도 취해야 해서 돌아올 때는 휴게소에 들르는데 너무 피곤해서 휴게소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당연히 집에 도착한 것은 8시 반이 훌쩍 넘어 9시가 다 되었다.

남해에 위치한 B 학교도 2시간 거리인데 이번에는 신규교사 수업참관과 수업협의를 2명이나 되었다. 아침부터 출발하여 수업을 2시간 참관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선생님들의 시간에 맞춰

수업협의를 하고 겨우 점심을 먹고 1시간 쉬었다가 전체 선생님들과 다시 전학공 연수를 진행했다. 역시 집에 도착한 시간은 8시가 넘어서였다. 처음 이 학교에서는 신규교사 수업컨설팅과 전학공 연수 2회를 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것은 무리가 있어서 1회로 조정하면서 하루에 이 일정을 같이 진행했는데 체력적으로 부담은 있었지만 수석교사로서는 매우 의미있고 보람있는 시간임에는 틀림없다. 그래도 경남이 아닌가. 다행히 그때는 다른 일정들이 많이 없던 때라 수업이 없는 금요일을 기꺼이 헌납하였다. 그래서 수석교사에게는 수업 시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출장가는 시간 이외에도 컨설팅과 연수를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2배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제는 체력적인 부담이 있어서 자주는 못할 것 같지만 말이다.

14) 2022.김해교육나눔한마당 분임워크숍 사회 및 퍼실리테이터

지난 2월부터 함께 고민하여 설계한 김해교육지원청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리더교사 양성 연수과정 설계 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유로 11.24.김해교육나눔한마당에서 김해교육의 4가지 특색 과제 중 1번 과제인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대한 분임워크숍의 사회를 맡아 분임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코로나 이전에는 규모가 큰 워크숍이나 퍼실리테이션 전체 진행도 많이 했었는데 모처럼 큰 규모의 진행인데다 시일이 촉박하여 준비과정도 많이 힘들었지만 진행도 만만치가 않았다. 다행히 우리 추진단의 여러 인재들과 협업과 분업을 계획하여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마음 열기, 전문적 학습공동체 리더교사 양성 연수과정 사례 발표, 토의 방법 안내, 토의 진행, 마무리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3가지 질문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 정리와 토의 결과 발표까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게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행사를 앞두고 며칠 동안은 다른 일은 제쳐두고 올인하여 준비를 했고, 다행히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

전체 진행을 맡은 입장에서는 마음 열기와 연수과정 사례 발표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지고 1개 질문에 대한 토의 후 월드카페로 다음 질문을 나누어 많은 답을 얻고자 했지만 그러지를 못했다. 의외로 참석자들 중에는 충분한 이야기 시간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시간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후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마음 열기 질문 덕분에 진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고 했다. 그래서 처음 계획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 좋았고, 다음에 좀더 긴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교육지원청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기회가 되었다.

15) 예비교사 대상 교직실무 강의

박사학위를 받은 지 20년이 지났다. 학위를 받았던 그때는 대학 강의를 맡아서 결혼하고 임신해서 출산 직전까지 강의했는데 출산 후부터는 강의를 하지 않았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강의를 다시 맡게 되었다. 첫 학기는 대면수업이어서 강의는 수월했다. 그동안 늘 생각해오던 내용들과 강의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학교 혁신, 수업 혁신을 중심으로 교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 평가와 업무 추진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강조하였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로 인해 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면서도 수업 진행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강의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했다. 올해 대면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다행히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심리 건강도 많이 양호해졌다.

처음 5-6주간은 교사로서의 교직원, 교육철학을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토론하며 가치관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교사로서의 의무와 권리, 복무 등에 대해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한다. 내 수업 시간에는 토론이 많다. 그리고 첫 번째 팀 프로젝트를 한다. 주제는 학교 교육과정 비전 세우

기이다. 팀원이 교사가 되어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실습하는 것이다. 그 활동 이전에 이상적인 학교에 대해 퍼실리테이션으로 충분히 생각해본다. 그리고 그것을 담아 자신들의 학교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비전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다른 학교의 교육과정 비전을 보고 참고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지역의 교육과정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만들도록 한다. 학생들은 검색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기에 바쁘다. 그렇게 중점교육과 특색교육 활동까지 정하고 나면 설명 준비를 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모두가 발표하도록 한다. 팀 수에 따라 월드카페나 박람회 구조 등을 활용한다. 발표를 촬영하기도 하고, 다른 팀의 발표를 듣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도록 한다. 모두가 과정중심 평가이다. 활동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활동을 처음 해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힘들어 하는 학생도 있다. 이 프로젝트는 2주로 진행한다.

수업에 대해서도 그들이 만든 학교의 교육과정 비전에 따른 수업을 연구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그리고 공문서 작성 실습을 한 후 학교 교육과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선정하여 업무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두 번째 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3-4주로 진행하기에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중간에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실습도 한다. 가능하면 강의는 강의자료를 먼저 주고 기본적인 강의 이외 토론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강의 초반에 교사 십계명을 만들어보는 것도 토론 후 작성해보게 한다. 모든 것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하고, 중등이지만 학급경영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기를 당부한다. 학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부디 좋은 선생님들이 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본다.

4. 존엄과 환대의 관계부터 다시 시작하자

며칠 전 업적평가 보고서 초안을 인쇄 출력하여 교장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활동을 다양하게 많이 했다며 언제 이렇게 다 할 수 있었는지, 많이 바빴겠다며 뜻밖에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 남해, 하동의 먼 거리 컨설팅을 다녀오는 것은 쉽지 않을텐데 고생이 많다고 하셨다. 힘들지만 보람있다고 말했다. 학교 선생님들이 컨설팅을 많이 원하지 않는다는데 어쩌냐고 물어보셨고, 또 수석교사로서 학교에 있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교육청에 있는 것이 나은지 어쩌냐고도 물어보셨다. 수석교사제 초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무리 다른 학교 선생님들 컨설팅을 가더라도 학생들 곁에, 교사들 곁에 수석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학교가 좋겠다고 의논한 바 있었다. 교육정보다는 연수원이나 연구정보원 등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수석교사제 10년이 지나고 이제 단위학교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도입되어 활성화하고 있는 시기에 수석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석교사가 있는 학교는 없는 학교와 다른 시스템을 가지게 되고 문화를 가지게 된다. 이것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수석교사제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분명 학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 학생들까지 수석교사의 존재와 관련하여 그들에게도 어떤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하나 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걱정스러울 때도 있다. 존중과 배려는 당연하지만, 자칫 너무 그들을 의식하여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런 적도 많았다. 이렇게 위축되는 내 자신이 싫어서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한다.

수석교사로서 당연히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다. 그렇다고 다른 구성원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는 않다. 그러려면 서로를 고려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야 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직 문화도 필요하다. 수석교사는 누구보다 사명감과 봉사심이 강하다. 수석교사로서 잘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수석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누구인지, 어디인지 확인하고 더 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부터 지원하려고 애쓴다. 그러니 수석교사를 믿고 응원해주면 좋겠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공부를 하면서 읽은 <학교의 미래,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열다>에서 제시한 전학공 상생 키워드6의 첫 번째가 존엄과 환대이다. 수석교사는 어느 누구든 존엄과 환대로 대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존엄과 환대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누적되면 수석교사도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리더교사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사람은 수석교사이다. 하지만 수석교사가 많지 않다보니 교내 활동 이외에도 여기저기서 부르는 곳이 많다. 위에서 제시한 활동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봉사심을 가지고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수석교사들이 많으시다. 교내에서 부르면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고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수행을 훌륭하게 수행하실 것이다. 그런데도 비난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이는 이런 경우에도 외부 활동을 너무 안한다고 능력이 없다고 비난하는 말을 한다. 이런저런 수석교사에 대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많이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조금은 걱정스러울 때도 있다.

작년에는 교내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수석교사로서 할 일을 찾았다면 올해는 역할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보았다. 내년에는 또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와 외부의 요청에 따라 나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어떤 것이 되든 수석교사로서 부르는 곳에 기꺼이 달려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 제발, 수석교사를 비난하는 말을 그만 멈춰주었으면 한다. 우리 모두 같은 교육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날을 기대해본다.

수업 나눔으로 성장하는 학교, 수석교사가 있다!

정종희(양산중학교 수석교사)

< 목 차 >

1. 들어가며
2. 교내 활동(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중심으로)
3. 교외 활동
4. 마치며

1. 들어가며

나는 3년차 수석교사이다. 2012년에 배움중심수업을 처음 접하고 직업인으로서가 아닌 교사로서의 행복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바로 '수업'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계속 배움중심수업을 실천하다보니 아이들의 배움에 입각하여 수업을 잘 하기가 참 쉽지 않고, 많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학교 밖에서 연구회 모임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수업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연구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동료 교사들이 협력하여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이들의 배움과 보다 잘 연결될거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나는 단위학교에서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수석교사에 도전하게 되었다.

지금 현재 내가 근무하는 양산중학교는 경남 양산에 위치해 있다. 2017년 3월에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로 지정되었고, 2021년 3월에 재지정되어서 올해 6년째 행복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가 구도심에 위치해 있어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남자중학교이다. 중규모의 학교(18학급)이며 30대와 40대 교사가 많은 편이어서 매사에 적극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

2. 교내 활동

초임교사나 저경력 교사는 어떤 학교에 어떤 선배 교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배우는가에 따라 교사로서의 삶의 철학이 바뀐다. 선배 교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초임교사 입장에서는 묻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더구나 선배교사들이 업무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만, 수업은 교과 전공이 있으니 가르쳐 주기 쉽지 않고,

또 가르쳐 준다고 해도 가르치는 방식을 말로 가르쳐주거나 아이들을 휘어잡는 방법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수업은 상황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있는 대처이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이 잘 배우는지 고민을 함께할 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설령 있다고 해도 그럴 시간적 여유도 거의 없다. 수석교사는 학교안에서 이런 고민의 장을 만들어 주고, 직접 함께 고민을 하기도 하며, 이런 고민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즉, 업무처리로 인하여 바쁜 교사에게 수업이 본분임을 늘 잊지 않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2022학년도 양산중학교 수석교사 연구 활동 계획입니다.

[수석교사 활동 세부 추진 계획]

주제	활 동 내 용	2022 추진 계획	
		대상	시기
수업 지원 활동	(1) 수석교사 상시 수업 공개 - 상시적으로 교실을 열어 수업을 공개 - 공개수업 참여 후 협의	교사	수시
	(2) 수업 자료 개발 및 보급 - 배움중심수업 자료 및 활동지 개발·적용 (수학과 3학년) - 핵심역량 중심의 2015 개정교육과정 수업 자료 개발 및 적용 (수학과 3학년)	수학교사	연중
	(3) 교원 연수 - 새학기 맞이 워크숍 지원 - 교수-학습 방법 개선 연수 지원 -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연수 지원 -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이해 및 운영 - 학년 프로젝트 수업	전체교사	연중
	(4)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수업 나눔을 통한 교사 전문성 신장 기여 - 수업을 중심으로한 동료성 구축 - 자발적인 수업 공개 및 협의회 문화 조성	전체교사	연중
	(5) 저경력 교사 수업 및 생활지도 컨설팅 및 적응 지원 - 생활지도 및 학교 적응을 위한 멘토링 - 다양한 수업 방법에 대한 멘토링 -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멘토링	저경력 교사	연중
	(6) 수업 나눔 주간 수업 컨설팅 - 수업 관찰 분석 지도 - 수업촬영 후 모니터링 - 수업참관록 공유 - 교육과정 문해력 및 실천적 지식 지도	전체교사	6월
	(7) 교사 수업 동아리 운영	희망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동아리 구성·운영 지원 - 학교 내 연구 활동 분위기 조성 		연중
	(8) 부적응 학생 상담 및 학습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력하거나 학교 부적응 학생 상담 - 수학 기초 학력 미달 학생 학습지도 	학생	연중
	(9) 교내 자율 장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수업 친구' 운영 - 수업 상시 공개 및 수업 분석 - 개인별, 교과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마이크로티칭을 위한 수업동영상 촬영 및 분석 	전체교사	연중
	(10) 평가 계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지원 - 평가 계획 수립 지원 - 평가 계획 검토 	전체교사	3월,9월
	(11) 교육실습생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실습생 연수 - 교육실습생 수업 컨설팅 	교육실습생	5월
학생, 학부모 연수	(1) 배움중심수업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패러다임의 변화 및 배움중심수업의 이해 -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관련 연수 지원 	학생, 학부모	3월,9월
강의 활동 및 연수자료 개발	(1) 수업 개선 관련 각종 연수 강사 요원으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수 - 배움 중심 수업의 이해 및 교-수-평-기 연수 - 학기 맞이 수업 설계 캠프 강사 - 새학년 맞이 강의 	교사	수시
	(2) 외부 수업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외 수업 컨설팅 	교사	수시
자기 연찬	(1)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컨설턴트 연수 - 전문적 학습공동체 컨설턴트 연수 - 교-수-평-기 연수 	-	수시
	(2) 수업 연구의 질적 연구 방법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참관록 연구 - 수업 사례 연구 -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디자인 연구 	-	수시
	(3) 수업 관련 연구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산배움의공동체 연구회 운영 - 경남배움의공동체 세미나 참가 - 한국배움의공동체 연구회 운영위원 활동 및 세미나 참가 - 경남 수석교사 수업컨설팅 연구회 활동 - 행복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 중등 혁신학교넷 연구회 활동 	-	수시

그러나 학교에서 수업에 대한 이야기는 교사의 독립적인 영역이라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어서, 그것을 공적인 영역으로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다. 교사 개인의 지식, 능력, 기술, 태도와 같은 전통적인 교사의 전문성과 더불어 협업, 학습, 의사소통 능력과 반성적 성찰력을 가지는 새로운 관점의 전문성은 학교 내의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에 수석교사는 공을 들여야 하며, 수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 교사 문화의 변화 역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속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내에서 제가 하고 있는 수석교사의 활동을 몇 가지 안내드린다.

1)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경상남도교육청은 2019학년도부터 전 유·초·중등·특수학교에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도록 방침이 내려왔다.

성장

2.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가 【학교안】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내실화

㉮

학교별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내실화

- (목적) 수업혁신을 위한 공동연구 및 공동실천으로 교원 전문성 동반 성장
- (구성) 학교별 자체 계획에 따라 학교별/학년별/교과별 등으로 구성·운영
- (운영비) 전 유·초·중등·특수 **교원 1인당 40,000원 지원**
※ [참고] 2022.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예산 안내(중등교육과-28351(2021.12.20.))
- **방침 및 운영**

- 다모임 및 민주적 교직원회의 등으로 소통하여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
- 공동체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여건에 맞는 운영방법(형태, 주제, 시기 등) 모색
- 업무처리 절차, 서식 등 간소화하여 교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교내 자율장학과 연계한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및 수업나눔 계획 수립
- 일상의 수업나눔 및 수업성찰을 통한 수업혁신 지향
-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의 특수분야 연수학점 인정

- **활동 내용(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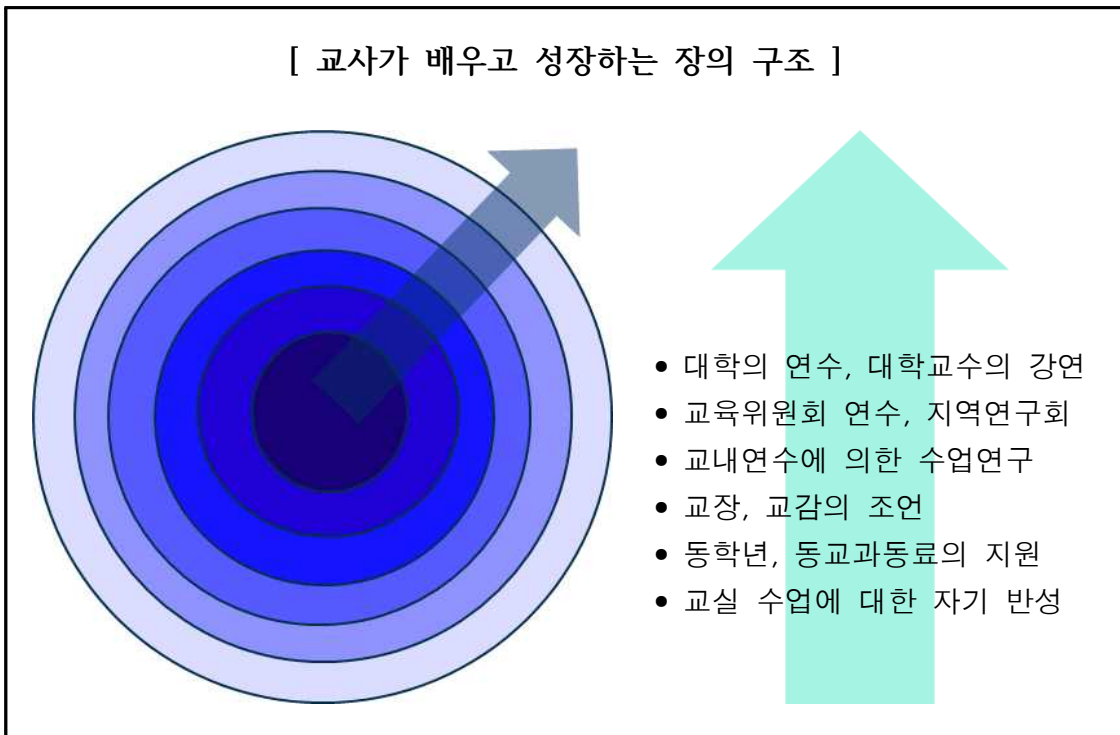
- 학교 비전 세우기 및 공유(학교 교육의 방향과 지향점, 교육 철학, 전략 등을 포함한 비전 공유)
- 학교·학년 교육과정 편성 및 학년·교과별 연간 운영 계획 협의
-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방법 및 평가내용 협의
- 수업나눔 및 수업성찰, 수업과 평가 개선을 위한 자료 공유
- 수업-평가 혁신을 위한 주제별 연구 활동, 독서활동 등 전개

2019학년도에는 전문적학습공동체 담당자 연수, 교장 연수, 교감 연수 등 많은 연수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2020년도에 닥친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일상적인 수업 나눔이 중심이 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잘 운영되지 않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시스템의 부재이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려면 일과 시간 내 교사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학교의 교육과정 수립, 연간 학사일정을 세울 때부터 민주적인 협의 하에 시간 확보를 해야하는데 이것은 담당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학교와 학교급의 여건에 맞게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계획을 세우고, 운영시간에 하는 활동들이 일과시간 내에 이루어지려면, 단축수업을 하거나,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등을 확보하여 오롯이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학교 차원에서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에서 교사들의 배움이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시간 확보를 한다고 해도 내 수업을 성찰할 수 있는 배움이 없다면, 교사들의 참여는 점점 줄어들 것이며 형식적인 운영밖에 될 수 없다. 사토마나부 교수는 「교사 교육의 그랜드 디자인」에서 ‘학교는 교사가 배우고 성장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장이며, 교사가 배우고 성장하는 장은 그 교사의 교실을 중심으로 동심원적 구조로 나타난다. 이 구조에서 중심이 가장 배우고 성장하는 기능이 강하며 주변으로 갈수록 약해진다. 교사는 자기 교실 실천에 대한 숙고와 반성을 기본 축으로 하여 배우고 성장한다.’ 고 하였다.



교실 수업에 대한 자기 반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자신이 수업 나눔을 하거나, 동료 교사의 수업 참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예전의 교사 중심의 수업 관찰이 아닌 아이들의 배움 중심의 수업 관찰과 관찰된 사실을 통하여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성어린 사후 협의회는 필수조건이다.

이 두 가지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학년 초부터 단위학교의

여건에 맞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자와 협의하고, 전체 선생님에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배움이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을 위하여 수업 나눔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수업을 관찰하고 협의하는 방법을 연수하고, 수업 컨설팅을 통하여 수업의 사실을 통해서 내 수업의 성찰을 이끌어 내는 수업연구의 장이 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 또한 수석교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다.

양산중학교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 수업 나눔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형태는 전체교사 수업 나눔 및 학년별 교사 수업 나눔이다. 금요일 창의적체험시간을 범교과 활동으로 확보한 뒤, 연간 7회의 6교시 수업 나눔 및 7교시~8교시 협의회를 진행되었다. 처음 2회는 전체교사 대상 수업 나눔을 하였고, 이후 5회는 학년별로 세 명의 교사가 같은 날에 수업 나눔을 진행하였다. 수업 후 협의회에서 수석교사는 선생님들의 협의가 끝난 후 컨설팅을 하거나 직접 협의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형태는 수업친구 소그룹별 수업 나눔이다. 학년 초에 모든 선생님들은 수업 친구를 정한다. 2명 이상 가능하고, 동교과나 동학년이나 원하는대로 정할 수 있다. 수업 친구 소그룹을 정한 뒤 간단한 활동 내용을 제출하고, 1학기에 3주 정도의 수업주간에 수업친구끼리 수업 나눔을 한번씩 하는 것이다. 이때 전문적학습공동체 수업 나눔에서 수업 나눔을 하신 분들은 수업 친구 수업 나눔은 안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모든 교사가 일년에 한번 이상은 수업 나눔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석교사는 소그룹별 수업 친구끼리 하는 수업 나눔에 모두 참관하여 수업 나눔 후 협의회를 함께 진행한다. 올해는 수업 친구와 함께 하는 수업 나눔 주간에 열 세분의 수업을 보고 같이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수업 친구와 함께 하는 수업 나눔은 모든 수업에 수석교사가 함께 참관하면서 수업컨설팅을 포함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참관 교사 수가 많지 않아서 수업자 선생님의 부담은 좀 적은 것이 좋다는 평가가 있었다.

다음은 양산중학교 「2022.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계획이다.

2022.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계획	
수업 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명	함성소리 (함께 성장하기 위해 소통하는 우리)
주제	수업 나눔과 협의회를 통한 수업 질적 연구

□ 운영 배경

-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수업과 평가 혁신이 어렵다는 문제 인식**
 - 수업을 바꾸기 위한 교사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학부모, 학생, 동료 교사 간의 인식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교사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시스템 필요**
 - 교육(지원)청과 학교관리자는 교사가 수업과 평가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목적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배움 중심의 학교 문화 기반 조성
- 수업 나눔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교사 서로 간의 성장을 도모
-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으로 동료애를 바탕으로 한 교사 집단의 공동체성 회복

□ 운영 방침

- 학년 초 연간학사일정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의 날을 지정한다.
- 전체교사대상 또는 학년별 수업 나눔 및 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
- 통합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 실시
- 금요일 창의적재량활동 시간의 범교과 학습주제 교육을 교과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확보된 시간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시수를 정례화하여 운영

□ 운영 방법

- 전교사 1공동체, 학년별 전문적학습공동체 병행
- 연간 8회 운영
- 운영시간 : 금요일 6~8교시(14:25 ~ 16:50) (* 코로나 19로 인한 탄력적 운영 가능)
- 연수 시간 이수 충족 시 연수 학점 인정 (24시간)
- 연수 장소 : 수업 나눔 해당 교실 및 교내

□ 수업 혁신 전문적 학습 공동체 수업 나눔 세부 일정

- 전문적 학습 공동체 수업 나눔의 날 운영

월	일	운영 내용	컨설턴트 또는 수업자
3월	25일	3시간 수업 나눔의 의미, 수업 나눔 관찰 방법 및 협의회 방법 연수	강의 : 정종희(수석교사)
4월	15일	3시간 전체교사 대상 수업 나눔 및 협의회	수업자 : 이OO 컨설팅 : 정종희(수석교사)
5월	13일	3시간 전체교사 대상 수업 나눔 및 협의회	수업자 : 김OO 컨설팅 : 정종희(수석교사)
6월	17일	3시간 학년별 수업 나눔 및 협의회	수업자 : 장OO, 백OO, 차OO 컨설팅 : 정종희(수석교사)
9월	2일	3시간 학년별 수업 나눔 및 협의회	수업자 : 홍OO, 고OO, 이OO 컨설팅 : 정종희(수석교사)
9월	23일	3시간 학년별 수업 나눔 및 협의회	수업자 : 홍OO, 강OO, 이OO 컨설팅 : 정종희(수석교사)
10월	21일	3시간 학년별 수업 나눔 및 협의회	수업자 : 연OO, 김OO, 임OO 컨설팅 : 정종희(수석교사)
11월	18일	3시간 학년별 수업 나눔 및 협의회	수업자 : 이OO, 조OO, 제OO 컨설팅 : 정종희(수석교사)

● 수업 나눔 주간 소그룹별 수업 나눔 운영(2022.6.2.~ 6.17.)

(가) 운영 방법 : '수업 친구' 운영

(나) 운영 형태 : 소그룹별 자율 장학 활동

(다) 참관자 : 수석교사, 수업 친구, 교장, 교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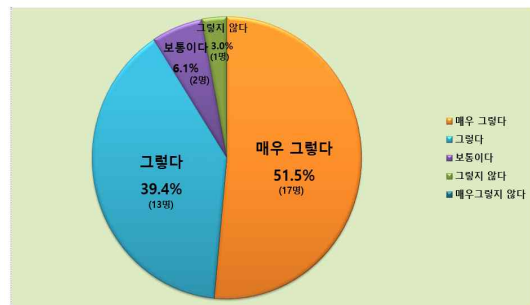
연번	그룹	활동 내용
1	김OO, 안OO, 고OO	수업 나눔 및 협의회, 프로젝트 수업 논의, 수업 활동지 설계, 평가계획 및 학생부 기록 논의
2	최OO, 제OO, 이OO, 이OO	수업 나눔 및 협의회, 국어과 교-수-평-기 연구
3	백OO, 김OO, 박OO	수업 활동지 설계, 수업 나눔 및 협의회
4	안OO, 이OO, 고OO, 하OO	수업 활동지 설계, 수업 나눔 및 협의회 등
5	김OO, 홍OO, 박OO	수업 나눔 및 협의회
6	김OO, 장OO, 안OO, 박OO	수업 나눔 및 협의회, 평가 계획 논의, 수업 활동지 설계
7	전OO, 권OO	수업 활동지 설계, 수업 나눔 및 협의회
8	이OO, 임OO, 이OO	성취기준 분석하기, 수업 활동지 설계, 수업 나눔 및 협의회
9	이OO, 차OO	성취기준 분석하기, 수업 활동지 설계, 수업 나눔 및 협의회
10	조OO, 장OO	수업 활동지 설계, 수업 나눔 및 협의회
11	연OO, 홍OO, 김OO	수업 활동지 설계, 수업 나눔 및 협의회
12	강OO, 홍OO	수업 활동지 설계, 수업 나눔 및 협의회

[2022학년도 1학기 전문적 학습공동체 설문경과(33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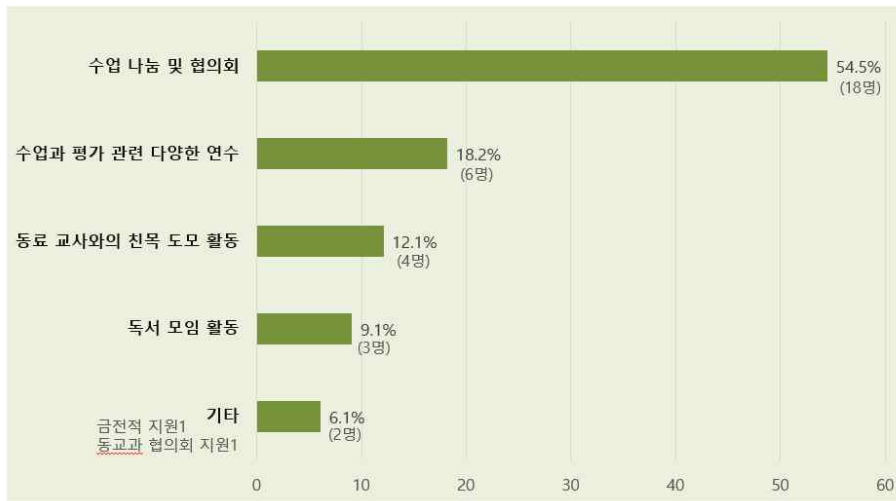
1.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이 수업의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33명 응답)



2. 우리 학교에서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혁신으로 배움중심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33명)



3. 단위 학교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운영에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전문적 학습공동체(수업전 협의회, 수업나눔, 수업후 협의회)으로 나에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된 것은?(2개 선택)




2) 수석교사 상시 수업 나눔

학기 초에 수석교사가 먼저 수업 나눔을 할 필요성을 느꼈다. 올해 양산중학교로 전입해와서 아직 아이들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수업을 나누는 수석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협의회도 함께 하면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맺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수석교사가 일상적인 수업을 일주일 동안 공개한다고 안내하여도 본인의 수업과 업무로 바쁜 선생님들이 참관하러 오시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긴 글을 남겨 수업 나눔의 참관을 유도하였다. 또 일주일 동안 1학년 주제선택수업을 제외한 정규수업 6시간을 모두 공개하여 교사들이 본인의 수업과 겹치지 않는 수업을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미리 해당 교사의 참관 신청을 받았다. 수업 나눔이 끝난 후에는 협의회도 진행하고, 참관교사와 함께


한 협의록, 저의 수업 성찰을 기록하여 전체 교원에게 공유하고, 내부기안도 올렸다. 이것은 수석교사와 함께 근무해보지 않았던 우리학교 교장, 교감선생님을 포함하여 전체교사들의 수업 나눔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기 위한 노력이었다. 수업 나눔을 하는 것은 수석교사의 업적을 위한 것 또는 수업 나눔을 해도 보러가지 않는 것이 예의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 5월 양산중학교는 교육실습협력학교를 운영하여 교육실습생이 6명 왔다. 교육실습생에게 나는 세 번은 연수(배움중심수업, 수업디자인, 수업참관 방법 및 수업 관찰을 하는 방법)를 진행하였고, 교육실습생이 본인의 공개 수업을 구상하기 전에 일주일간 수석교사 수업을 상시 공개하여 참관하도록 하고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교육실습생마다 지도교사가 있지만, 수업 공개나 연수 등을 수석교사가 함께 참여하면서 교사의 부담도 줄이고, 교육실습생에게도 질 높은 연수와 수업참관, 수업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 또한 수석교사가 지원하였다.

경남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입니다.



양산중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 수석교사 상시 수업 공개 계획

1. 관련: 양산중학교-2215(2022. 3. 7.)
2. 2022. 수석교사 상시 수업을 아래와 같이 계획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수업 공개 주간 및 참관 대상자

상시 수업 공개 주간	수업 참관 및 협의회 참가자
3월28일(월) ~ 4월 1일(금)	전체 교사 중 희망 교사
5월9일(월) ~ 5월13일(금)	교육실습생

나. 진행 방법 : 수업 참관 교사 신청을 미리 받아서 진행. 끝.

[상시 수업 공개 결과]

수석교사 정종희

일시(교시)	장소	참관자	수업 후 협의회
2022.3.28. (4교시)	3-6	제OO(국어)	13:00~13:20(교무실)
2022.3.29. (3교시)	3-6	백OO(과학), 김OO(사서)	16:15~16:40(도서실)
2022.3.30. (4교시)	3-5	차OO(영어), 임OO(역사)	13:00~13:20(교무실)
2022.3.31. (5교시)	3-6	박OO(수학), 김OO(사서), 교감	16:15~16:40(도서실)
2022.4.1. (3교시)	3-5	안OO(수학), 장OO(수학), 김OO(사서)	13:00~13:20(교무실)

<p style="text-align: center;">협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전달 수업이나 개별 수업에서는 포기하던 아이들이 모둠에서 서로 묻고 배우는 모습을 보고 모둠의 순기능을 보았음. - 제공근의 덧셈을 가시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아이들이 더 잘 배우는 것을 보았음. - 수업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잠시 후 교사가 대답하는 나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다.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겠다. - 전체 공유시간에 잘 못하는 아이들이 나와서 공유를 하고,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는 모습이 좋았음. - 전체 공유를 할 때 표현하는 아이에게 아이들 얼굴을 보면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알 수 있으니 설명하면서 아이들을 표정을 보라고 안내하고, 칠판 아래 의자에 앉아서 표현하니 좀 더 차분해지고 안정적인 느낌이었음. - 1학년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묻고 배우는 관계가 잘되어 있고, 가르쳐주는 아이도 혼자서 바로 모든 설명을 하지 않고, 발문을 하며 설명하는 장면을 보니, 아이들의 묻고 배우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함을 배움. - 제공근의 나눗셈을 하는 점프활동에서 태풍의 반지름과 태풍의 지속시간 문제가 좋았음. - 선생님이 임OO 아이에게 표현을 시켰는데, 잘 모른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모르겠다고 말해도 되는 허용적인 교실임을 알았음. - 교사의 목소리가 차분하여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수업이 진행됨. - 이OO 학생이 앞에 나와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매끄러운 설명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잘 이해하는 모습을 보았음. - A학생은 모둠에서 다른 학생에게 전혀 묻지 않고 있다가 교사에게 가서 아이들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교사는 그 학생에게 직접 가르쳐주지 않고, 모둠으로 가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물어보고, 선생님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게 시켰다. 그랬더니 B학생이 그 전에 다른 아이에게 설명할 때보다 훨씬 잘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다. 교사가 직접설명하는 것 보다 아이들끼리 배울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을 배우게 되었음.
<p style="text-align: center;">수업 자의 수업 성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와 연산 영역은 수학에서 아이들의 학력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영역이다. 한 모둠안에서도 학력차가 많아서 사칙연산을 다 풀 줄 아는 아이와 덧셈을 못하는 아이들이 함께 있어서, 아이들이 모둠안에서 잘 배우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교사가 해주어야 한다. 여전히 아이들을 연결해주는 것이 힘들고, 놓치는 아이들이 있다. 수업을 마치고 나면 ‘A학생에게 좀 더 가봤어야 하는 건데...’ 하는 후회가 항상 생긴다. 그리고 여전히 교사에게만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도 가장 가까이에서 친구에게 잘 배울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 또한 나의 숙제이다. - 코로나로 인하여 빈 자리가 생겨서 아이들의 모둠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 모둠을 옮기기도 하고, 가고 싶은 모둠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서 아이들이 누구와 만나도 협력적인 탐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한번 더 필요한 것 같다. - 계산의 기능을 배우는 수학 활동에서 아이들의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모둠활동이다.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의 연습은 각자 스스로 풀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활동지11><활동1>을 하면서 아이들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이럴 때 전체 공유의 시점이 여전히 애매하다. <활동지9>의 양은 한 차시에 많았다. <활동4>번을 빼고, 유리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Jump> 문제를 하고, 다음 차시에 사칙 연산을 연습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 코로나로 인하여 수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좀 더 미리 챙겨야 했다. 계산 영역이라 제공근의 의미나 계산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을 따로 공부로 시켰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3) 교내 교사 수업 동아리 운영

양산중학교는 교내에 교사 수업 동아리(修up! 秀up!)가 있다. 수업을 하는 교사 34명 중 수업 동아리 회원은 20명이다. 동아리 회원은 3월 초에 자발적으로 모집을 하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모임을 하고 있다. 교내 수업동아리의 연간 계획은 첫모임에서 선생님들과 협의하여 정하고, '수업탐구 전문적학습공동체' 라고 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되고 있다.

교내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동아리 선생님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배움중심수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교사의 철학을 공유하고, 독서 나눔을 통하여 함께 토론하여 수업으로 연구하는 문화를 만들어 놓아도, 공립학교는 매년 많은 교사들의 전입·전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교사 수업 동아리가 지속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동아리 회원을 중심으로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눌 동료교사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공부하면서 그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올해 양산중학교 교사 수업 동아리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였고, 운영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된 내용을 준비하는 것도 수석교사가 하였다.

다음은 양산중학교 교내 교사 수업 동아리 활동 내용이다.

[교내 교사 수업 동아리(修up! 秀up!) 활동 내용]

순	일시	장소	대상	연수 및 코칭 내용
1	4. 1.(금) 15:30 ~ 16:30	이음 교실	수업동아리 교사	회원 소개, 운영 방향 협의
2	4.22.(금) 15:30 ~ 16:30	이음 교실	수업동아리 교사	교과별 수업디자인 공유 및 연구
3	5.20.(금) 15:30 ~ 16:30	이음 교실	수업동아리 교사	수업디자인의 변화 공유 및 연구
4	6.24.(금) 15:30 ~ 16:30	이음 교실	수업동아리 교사	독서 나눔(핵심질문) 1~3장

5	8.26.(금) 15:30 ~ 16:30	수석 교사실	수업동아리 교사	독서 나눔(핵심질문) 4~5장
6	10.7.(금) 15:30 ~ 16:30	수석 교사실	수업동아리 교사	독서 나눔(핵심질문) 6~7장
7	12.2.(금) 15:30 ~ 16:30	수석 교사실	수업동아리 교사	독서 나눔 (수행평가와 채점기준표 개발)

3. 교외 활동

교내에서의 활동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수업 혁신을 위한 수석교사의 활동이 필요할 때 타 학교나 교육청 사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 교사가 성장을 위해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듯이, 수석교사 또한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함께 배우고, 연구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연구회 활동

나는 배움의공동체 연구회, 경남 중등 수석 컨설팅 연구회, 행복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 중등 혁신학교넷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수업사례가 많아야 한다. 수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교사의 발문, 교사의 피드백, 아이들의 대화, 교사의 수업 기술, 수업디자인 등)들이 아이들의 배움으로 연결되는지를 연구해야 하며, 이러한 연구는 실제 수업 사례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내가 참여하고 있는 연구회는 수업동영상을 보고 함께 협의회를 하는 수업임상 활동과, 실제 수업을 보고 연구회 선생님들과 함께 ‘컨설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나는 11월 현재 49개(교내 컨설팅, 교외컨설팅, 연구회 활동 포함)의 수업을 보았다. 모든 수업에서는 배울 점과 고민되는 지점이 있고, 그것들이 사례가 되어 선생님들을 만날 때 수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2) 교외 수업 컨설팅 및 그 외 컨설팅

수석교사가 없는 학교 또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리더가 없는 학교에서는 수업 컨설턴트를 외부에서 위촉하는 경우가 있다. 수업컨설팅의 의뢰를 받으면 사전에 지도안을 받고, 공개 수업 차시에 대한 교육과정(교과의 본질, 역량, 내용체계표, 성취기준, 평가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준비를 하게 된다. 수업을 실제로 보고 난 후 학교 선생님들의 사후 협의회가 진행되고 수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는 협의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는 학교인 경우에는 직접 협의회를 진행하고 컨설팅을 덧붙인다. 타 교과의 수업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많고, 수업 협의회를 통하여 수업에서 본 다양함을 나누며, 공개되어진 한 차시의 수업을 보고 자신의 수업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전체 발문을 통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컨설팅과 전문적학습공동체 담당자 연수 등도 지원하여 학교에서 수업 나눔이 수업 연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 마치며

수석교사의 일은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끊임없이 연구하고, 성장하여야 한다. 물론 나의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반면 연구와 배움의 결과들이 학교의 수업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 개인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여러 기관의 시스템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업을 연구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학교에서 시스템적인 지원 없이는 수석교사의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고, 수석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수업혁신을 이루기는 역부족이다. 시스템과 수석교사의 역량 향상이라는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갈 때,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수석교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포럼이 수석교사가 단위 학교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원한다.

전문가인 교사의 성인 학습자적 특성을 고려한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 도입

김새로나(창원남산고등학교 수석교사)

< 목 차 >

1.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 도입 배경
2.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 도입 과정
3.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 진행 내용
4. 마무리 및 제언

1.1:1 수업 성찰 프로그램 도입 배경

현재 창원남산고등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은 본인이 부임한 올해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기간제 선생님을 포함한 전 교사가 의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모든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하고 선생님들의 동의를 얻어 수업 영상을 촬영하며, 수업 사전 설문 응답 내용과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선생님과 사후 성찰 대화를 나눈다.¹⁾ 1시간 정도 수석교사와 단 둘이서 사후 성찰 대화를 하는 것이나, 수업 촬영이 이루어지는 것, 수석교사가 한 시간 내내 수업을 참관하는 것 등등,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어떤 이유에서 전격 도입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일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수석교사와의 1:1 수업성찰 프로그램이 전격 도입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교과군별 혹은 학년군별 수업나눔에 대한 강한 거부반응의 존재했다 것이다. 교과군 대표로서 혹은 학년군 대표로서 수업을 공유해야 할 바에야, 차라리 수석교사에게 수업을 오픈하고 사후성찰대화시간을 갖는 것이 더 낫겠다는 분위기가 존재 하였던 것이다.

다른 선생님의 수업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함께 수업을 설계하여, 교과군별 혹은 학년군별로 수업을 공유하고 성찰하는 수업 나눔 프로그램은, 전문가인 교사들이 학습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1)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기간제 선생님도 원하시는 경우에는 1:1 수업 성찰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근무 기간이 짧을 경우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의무적 참여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3학년 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1학기중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며, 2학기부터 근무하시는 기간제 선생님이 3학년 수업을 담당하시는 경우에는 수업성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고히 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전문성을 개발 하는데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게다가, 각자의 교실에 고립되어 외로이 홀로 고군분투 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다른 선생님들과 수업에 대하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선생님도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왜 교과군별 혹은 학년군별 수업 나눔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이토록 강한 불편감을 느끼고 있으셨던 것일까? 이러한 현상에는 몇 가지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수업을 한다는 것은 교사에게 중핵적인 가치를 지니는 수행이며, 이러한 수행이 선불리 분석, 평가되거나 폄하되는 경우, 교사는 ‘자신의 수업’이 아닌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강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 쉽다²⁾. 물론, 수업을 나누는 교사들 간에 충분한 유대감(rapport)이 형성되어 있다면, 동료 교사들과 수업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것은 매우 이상적인 전문성 개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업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유대감은 일상생활을 부드럽게 영위하고 친밀하고 유쾌한 일상적 대화를 나누기 위해 요구되는 것 보다 훨씬 더 깊은 유대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업은 교사에게 있어서 중핵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이러한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자칫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 나눔을 위해서는 깊이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교사들의 바쁜 일상은 이러한 유대감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매년 20% 정도의 구성원이 전입과 전출을 통해서 바뀌는 상황은 수업 나눔의 전제라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유대감의 형성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³⁾. 충분한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동료 교사에게 수업을 공개하고, 공개된 수업이 다수의 교사에 의해서 ‘분석 당하는’ 경험은 수업 나눔 자체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둘째, 실질적 피드백의 부재는 수업 나눔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다. 수업 나눔을 통해서 실질적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업 나눔 사후 협의회에 참석한 선생님들이 양질의 피드백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고, 피드백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논의되는 피드백을 협의회에 참석한 각각의 교사가 선택적이고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피드백을 적용해 수업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실제로 기울인 후, 발전된 형태의(혹은 새로이 시도한) 수업을 다시 나눔 하는 순환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수업은 교사에게 있어서 민감한 중핵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모든 선생님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수업을 연 선생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리하여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다소 피상적이고 긍정적인 내용만을 언급하게 되기 쉽다. 정서적인 부담 때문에 사후 협의회에서 유의미한 정보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수업 나눔 프로그램의 의의 자체가 상실되기 쉽다.

2) 이러한 반응은 교사뿐만 아니라 성인 학습자에게서 공통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Knowles et al. 2015)

3) 수업과 평가,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지향하는 가치가 명확하고, 학교의 정체성이 확고한 경우, 교사의 전입·전출과 큰 상관없이 교과군 혹은 학년군별 수업 나눔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행복학교와 같은 수업과 평가의 변화를 강하게 추구하는 혁신학교들이 그러한 경우이다. 즉, 행복학교(혁신학교)는 학교의 지향하는바, 즉 정체성이 구성원의 이동과 상관없이 유지가 되지만, 일반적인 학교들은 특별히 그 학교만의 정체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고, 구성원의 이동에 따라서 학교 프로그램은 큰 영향을 받는다.

물론, 이렇게 민감한 대화를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션 역량을 갖춘 교사가 교과군/학년군별로 존재한다면, 교과군별/학년군별 수업 나눔 프로그램은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수석교사가 교과군/학년군별 수업나눔 사후협의회를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그러나 시간표 조정 등의 문제에 의해서 모든 사후 협의회를 수석교사가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다수의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 수업 시간 조정에 있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다.

셋째, 수업 나눔을 참관한 교사는 타인의 수업에서 자신의 수업에 대한 직접적인 함의를 찾지 못하기 쉽다. 과목이 다르거나, 같은 과목이라고 할지라도 다루고 있는 교과 개념 혹은 기능이 다른 경우, 학년이 다르거나 같은 학년이라도 반별 특성이 다른 경우에 대표수업을 참관한 교사는 수업 사전협의회나 사후 협의회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과 긴밀한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성인 학습자들이 주제 중심(subject-based) 학습이 아닌 문제해결 중심(problem-based) 학습을 훨씬 선호하는 특성을 갖는 것과 관련된 현상으로, 교과군별/학년군별 수업 나눔이 교사들에게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즉,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의 특정 단원의 특정 차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라는 문제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할 경우, 성인 학습자인 교사는 교과군별/학년군별 수업 나눔에 큰 의의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교수학습 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개념 지식을 가진 사후 협의회 진행자가 존재하여서 교과/단원/학생 간 차이와 같은 표면적 상이성을 뛰어넘는 공통의 학습원리를 짚어줄 수 있다면, 교과군별/학년군별 수업 나눔은 충분히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수석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교과군/학년군별 수업 나눔이 상대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되는 이유이다⁴⁾. 그러나, 수석교사가 없는 경우 이러한 역량을 갖춘 진행자를 발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넷째, 모든 교사가 대표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표수업을 하는 교사는 희생양이 된 것 같은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 교과군별 혹은 학년군별로 수업 나눔을 하는 경우, 시간표 조정의 어려움 등에 의해서 대표수업을 하는 교사는 전체 교사 중 일부에 국한된다. 이때 많은 학교에서 저 경력 교사나 기간제 교사가 대표수업을 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예도 있을 것이나, 만약 대표수업을 하는 교사가 자신이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표수업을 하게 되었다고 인식하게 될 경우, 수업 나눔의 경험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 되기 쉽다.

4) 물론 모든 수석교사가 이러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역량은 본인의 수업을 잘하는 역량과 별개로 학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역량이기 때문이다.

1. 수업의 중핵적 가치는 수업 나눔을 위해 깊은 유대감(rapport) 형성을 요구하며, 충분한 유대감 없이 진행되는 수업 나눔은 수업을 나뉘야 하는 교사에게 위협적인 행사가 될 수 있다.
2. 수업 나눔 사후 협의회에서 유의미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사는 수업 나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 있다.
3. 성인 학습자는 문제해결 중심(problem-based)의 학습을 선호하는데, 교사는 공유된 수업이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
4. 모든 교사가 대표수업을 하지 않을 경우, 대표수업을 하는 교사는 희생양이 되었다는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교과군별/ 학년 군 별로 진행되는 수업 나눔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2.1:1 수업 성찰 프로그램 도입 과정

본인은 다년간의 수업 나눔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통해 교과군/ 학년 군별 대표 교사가 수업 나눔을 하는 형태가 갖는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새로 부임한 학교에 교과군별 혹은 학년 군별 수업 나눔에 대한 강한 거부반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때, 이러한 상황을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기회로 받아들였으며, 새로운 형태의 수업 성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하여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성인 교육학(Andragogy) 모델을 통해 본 성인 학습자의 특성

(Knowles et al., 2015 에 소개된 내용을 요약)

1. 선택적 학습자

- 성인 학습자는 무엇인가를 배우기 이전에 왜 그것을 배워야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자 한다.
- 실제 상황 혹은 실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된다.
- 실제 상황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2. 높은 자기 주도성과 독립성

- 자신의 의사결정과 삶에 책임을 지는 존재
- 자기 주도적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대우받기를 원함
- 외부로부터 부과된 학습에 저항하는 경향
- 학습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함 :
'학습자는 의존적 존재이다'라는 내적 개념과 '자기 주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 간에 갈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갈등을 학습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음

3. 풍부한 관련 경험

- 학습 주제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음
- 관련 배경지식에 있어서 개인차가 매우 큼
- 개별화된 접근이 중요
- 풍부한 경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유리
- 개별 학습자의 경험에 대한 존중이 매우 중요 :
경험의 가치가 폄하되는 경우 특정 과업에서의 역량이 폄하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폄하되었다고 느끼는 경향 존재
- 기존의 경험이 새로운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음

4. 자신의 문제상황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 학습하고자 함

- 단순히 개념을 아는 것 보다는 실제상황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 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 습득에 관심을 보임
- 주제 중심(subject-based) 학습보다
문제해결 중심(problem-based) 학습을 선호
- 시뮬레이션 등의 시나리오 기반 학습이 효율적인 이유

5. 내적동기의 중요성

- 직업 만족도, 자아 존중감, 삶의 질 등에 있어서 내적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

1) 관리자 및 담당 부서와의 공감대 형성

먼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당 부서 부장, 업무담당자에게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이 수석교사 개인의 프로젝트로 인식될 경우, 자칫 수석교사가 자신의 성과를 위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행한다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⁵⁾. 따라서 관리자들과 업무담당자들에게 프로그램의 특성과 도입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움직임으로서 해당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전문성 개발을 위해 도입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관리자의 지지는 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학교조직은 행정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관리자의 영향력은 매우 절대적이다. 창원남산고의 경우,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부장 회의와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이 프로그램을 수석교사가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학교’에서 도입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프로그램 도입에 큰 힘을 실어 주었다. 다수의 연

5) 상당수의 선생님이 수석교사가 적극적으로 컨설팅 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자신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예를 들어, 성과상여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실적을 쌓는다면, 책임용심사를 대비하여 점수를 쌓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의 시선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에 기반한 의심이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석교사의 업무지침이 명확하고 정교하지 못하여, 개별 수석교사는 각자가 속한 학교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행의 형태와 질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나, 이러한 차이는 성과금 산정이나 책임용 결정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구 결과는 교수학습 코치(instructional coach) 혹은 수석교사(expert teacher)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관리자가 그들의 역량과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그 역량은 발휘되지 않고 사장된다는 사실을 보고한다. (Thomas et al. 2021, Sweeney & Harris, 2020, Goodwyn, 2016)

관리자와의 공감대 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담당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와의 공감대 형성이다. 2022년에 남산고등학교에서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당시 담당 부서장은 2021년에 다른 수석교사에게 수업 컨설팅을 받은 후 수업 컨설팅의 긍정적 가치를 직접 경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고 저돌적으로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의 도입을 주도하였다.⁶⁾ 당시 담당부장의 도움이 없이는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의 도입은 어려웠을 것이다.⁷⁾

2)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자세한 안내

프로그램 도입에 있어서 주도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뒤,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안내 연수가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 및 진행 방식에 대하여 최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였으며, 이때 전달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은 전문가인 교사의 성인 학습자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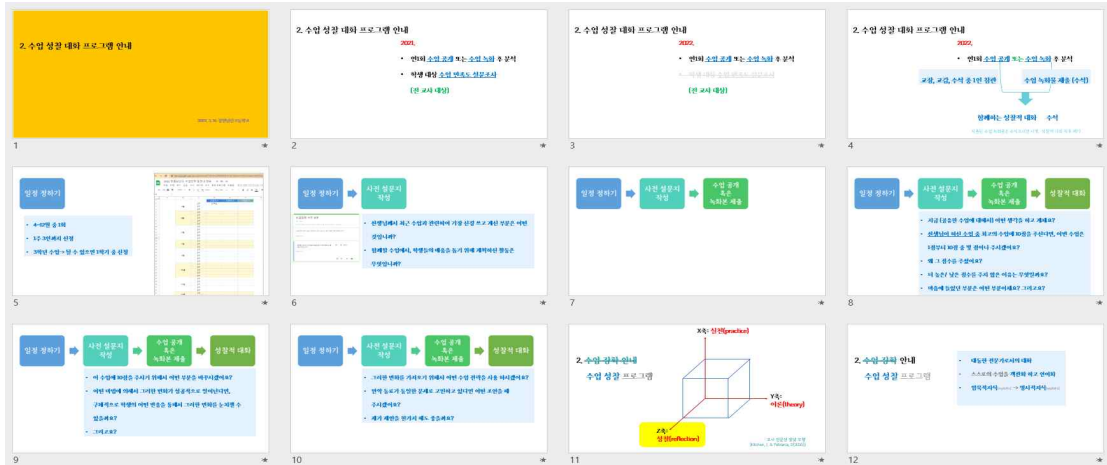
즉,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이 어떤 취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 교사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였다.⁸⁾ 또한 수업 성찰 프로그램이 수석교사가 교사의 수업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자세히 성찰하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도달의 방법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사전설문 문항과 사후성찰 대화 시 활용되는 질문 목록을 공개하고 설명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사들은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이 수석교사가 특정 형태의 수업을 안내하고 요구하는 주제 중심(subject-based) 접근이 아니라, 수업을 공유하는 개별 교사의 실제 수업맥락에서 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도달 방법을 탐색하는 문제해결 중심(problem-based)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성찰과 탐색을 위해 교사 자신의 풍부한 경험이 활용된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6) 1학기 교수학습지원부의 부장교사는 그 당시 이미 교감자격증을 갖고 발령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현재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로 근무중이다. 매우 유능한 교사이기도 하였지만 조만간 관리자로 승진을 할 것이 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수석교사의 역량과 역할에 대한 관리자의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7) 관리자 및 담당부서의 공감정도에 수석교사의 수행이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시스템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존재할 때, 어떤 수석교사가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수석교사 간 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 시스템의 부재는 수석교사 **직무지침의 모호성**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확실성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큰 틀, 즉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큰 틀 안에서는 자유롭게 창의적인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 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정중심평가에서 평가의 목적과 방법을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학습자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접근이다. 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이 큰 문제없이 도입되고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교사의 전문성과 성인 학습자적 특성을 존중하고 활용하였다는데 큰 이유가 있다.



<2022.3.16.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 안내를 위해 활용된 PPT: 연수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취지, 진행 방식,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제공되었다>

- 급격한 사회 변화와 더불어 교사의 끊임없는 자기 연찬이 필요한 시대임
- 자기 연찬의 자원을 외부에서 주어지는 피드백에 의존하는 것의 한계가 존재 :개별 교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점에 지속해서 알려줄 수 있는 피드백 제공자가 존재하지 않음
- 학습자로서의 교사는 자기 연찬을 위해 새로이 학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 익힐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함
- 교사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기 수업에 대한 성찰적 분석이며, 교내 수업 장학을 통해 성찰적 자기 장학을 위한 기본 도구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음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 안내 연수에서 제공된 프로그램 도입의 취지>

- 수업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 외에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계십니까?
- 함께할 수업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학습 결과는 무엇입니까?
- 어떤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 선생님의 의도가 달성되었다는 것은 학생들의 어떤 구체적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 함께할 수업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수석교사가 해당 활동의 어떤 부분을 특히 관찰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프로그램 안내 연수에서 공개된 사전설문 문항 목록: 수업 성찰 초점 설정의 주체는 수업을 공유하는 교사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수업 공유 전 자신의 수업을 명시적 언어로 되돌아보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

- 요즘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요?
- 그리고요?
- 선생님이 하신 수업 중 최고의 수업에 10점을 주신다면, 이번 수업은 1점부터 10점 중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 더 낮은 점수를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이 수업에 10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바꾸시겠어요?
- 어떤 마법에 의해서 그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일어난다면, 구체적으로 학생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그러한 변화를 눈치 챌 수 있을까요?
-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수업 전략을 사용하시겠어요?
- 만약 동료도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어요?
-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해도 좋을까요?

<프로그램 안내 연수에서 공개된 사후 수업 성찰 진행 질문 목록 : 위 질문 목록은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이 수석교사가 특정 형태의 수업방식을 안내하고 요구하는 주제 중심(subject-based) 접근이 아니라, 수업을 공유하는 개별 교사의 실제 수업맥락에서 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도달 방법을 탐색하는 문제해결 중심(problem-based)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또한 이러한 성찰과 탐색을 위해 교사 자신의 풍부한 경험이 활용된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위 질문은 Jim Knight이 대표로 있는 Instructional Coaching Group의 질문 목록 중 일부를 수정, 활용한 것이다.>

3)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의 확보와 업무 조정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하는 상황은 많은 사람에게 상당 정도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핸드폰과 삼각대만 있으면 자신의 수업을 촬영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교사는 촬영된 수업을 분석함으로써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도 자신의 수업을 진단하고 개선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며 매우 효과적인 전문성 개발 방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수업 성찰을 실행에 옮기는 교사가 극소수에 그친다는 사실은 현실직시가 요구하는 불안감의 강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자신의 수업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예측 가능성 확보를 통한 심리적 안전감 확보** : 프로그램의 성격과 진행 과정, 진행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것은 교사에게 심리적으로 안전감을 느끼게 한다. 수업 성찰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예측’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은 통제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높은 통제 가능성에 대한 인지는 교사가 심리적 안전감을 느끼게 한다.

(2) **장학에 대한 두려움 제거를 위한 업무 조정** :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의 코치(coach)를 수석교사로 한정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전감을 확보하였다. 한 교사의 수업에 교장, 교감, 수석교사가 함께 참관할 경우, 교사는 자칫 1 : 3의 심리적 대결 구도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구도 자체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선생님들은 관리자들을 ‘컨설팅’ 혹은 ‘코칭’보다는 ‘장학’과 결부시키는 경향이 크고, 이러한 연상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업을 참관할 때 심리적인 부담감을 크게 느끼게 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장학 활동이 ‘조언’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관리자가 좋은 의도로 조언을 제공하였을지라도, 요청받지 않은 조언(uninvited advice)을 제공하는 것은 조언 받는 성인에게 매우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쉽다(Stanier & Berdiell, 2016). 또한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자칫 (의도하지 않은 채) 성인 학습자의 경험을 폄하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이러한 메시지를 받은 성인은 자신의 수행이 아닌 자신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게 된다 (Knowles et al., 2015).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수업 성찰 대화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심리적 안전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원남산고등학교에서는 1:1 수업성찰대화 프로그램을 통한 수업 장학을 수석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수업 장학은 전통적으로 관리자(교장, 교감)가 의무적으로 진행해오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업무 조정이 이루어졌다.⁹⁾

(3) **기밀 유지에 의한 심리적 안전감 확보** : 1:1 수업 성찰 대화에 대한 안내 및 진행 시 선생님들과 수석교사가 나누는 1:1 성찰 대화 내용 및 수업 동영상은 절대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지 않음을

9) 창원남산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수업 장학을 수석에게 거의 전적으로 일임하는 결정을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수석이 없는 학교에서 수업 장학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고유의 업무영역이기 때문이다.

반복적으로 안내하였다. 즉, 선생님들의 수행내용을 심지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과도 공유하지 않으며, 수업 성찰 대화를 위하여 촬영한 수업 동영상은 성찰 대화 직후에 수석교사의 모든 기기에서 삭제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였다. 이는 수업을 공개하는 교사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개별 교사에게 있어서 수업 공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를 고려한 장치이다.

3.1:1 수업 성찰 프로그램 진행 내용

1) 일정 조정

수업 성찰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연간 일정 조정을 담당 부서가 진행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수석교사 개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실시되는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암묵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연간 일정이 확정된 후, 교사 개인별 세부 일정 조정 및 수업 참관, 사후성찰 대화는 수석교사가 진행한다.

2022 창원남산고 수업성찰 프로그램 일정 조정표

파일 수정 보기 삽입 서식 데이터 도구 확장 프로그램 도움말 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수정했습니다.

1 *동일 주에 너무 많은 인원(3명 이상)이 출석되면 조정이 불가피하니 이 점을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업성찰은 4월 18일 부터 시작됩니다.

3 회망 일정 1 회망 일정 2

4 월 주 월 주

5 1 김새로나 4 3 5 1

6 2 강 1 2 3 2

7 3 강 5 2 5 3

8 4 권 4 3 5 3

9 5 김 1 3 2 2

10 6 김 1 3 2 2

11 7 김 5 2 5 3

12 8 김 6 3 6 4

13 9 김 5 1 5 2

14 10 김 7 1 7 2

15 11 김 7 1 7 2

16 12 김 연수 연수 연수 연수

17 13 류 5 3 5 4

18 14 민 10 3 11 1

19 15 박 6 3 6 2

20 16 박 6 3 6 4

21 17 박 8 3 8 4

22 18 박 7 1 7 2

23 19 박 5 2 9 2

24 20 박 10 3 10 4

25 21 서 5 4 6 1

26 22 서 5 2 9 2

27 23 서 4 4 5 2

28 24 심 1 2 2 2

29 25 손 7 2 9 2

30 26 이 1 4 5 3

31 27 이 5 1 5 2

32 28 이 8 3 8 4

33 29 이 1 3 2 2

34 30 임 1 3 2 2

35 31 정 10 3 10 4

36 32 정 4 3 10 3

• 선생님께서 수업 공개를 통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내용을 다뤄기에 적절한 일정을 신청해 주세요.

• 수업 공개의 목적은 자신의 수업을 진전해 들여다보는 데 있으며, 특정 유형의 활동을 익히거나 선보이는 데 있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예를 들어, 강의식 수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강의식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생이 수행을 하고 교사가 학생 사이를 순회하는 수업인 경우에도, 그 수업 시간을 통하여 선생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달성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평상시에 하시는 수업 그대로' 공개 하셔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며, 수업 공개를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정확한 수업 일자는 신청하신 시점의 2주 정도 전에 협의하여 확정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간 조정이 가능하니 현재 계획에 따라 일정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찰 과정을 위해 활용되는 주요 질문 및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질문은 수업을 참관해 보기 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 선생님께서 최근 수업과 관련하여 가장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사전 질문)

• 함께할 수업에서, 학생들의 배움을 돕기 위해 계획하신 활동은 무엇입니까? (사전 질문)

• 선생님의 최소 수업 출 최고 수업에 10점을 주신다면, 이번 수업은 10점부터 10점 중 몇 점이나

<개별 교사 희망 일정 취합 - google spreadsheet 활용. 담당 부서 진행: 개별 교사 희망 일정 취합 페이지에 프로그램 안내를 위해 실시한 연수 시 제공되었던 정보를 다시 제공하여 교사들이 심리적 안전감과 자율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A	B	C	D	F	G	H	I	J
1									
2			울	주					
3	1	관	4	3					
4	2	서	4	4					
5	3	이	4	4					
6	4	길	5	1					
7	5	이	5	1					
8	6	길	5	1					
9	7	길	5	2					
10	8	조	5	2					
11	9	조	5	3					
12	10	류	5	3					
13	11	조	5	3					
14	12	조	5	3					
15	13	서	5	4					
16	14	이	5	4					
17	15	정	5	4					
18	16	박	6	1					
19	17	남	6	1					
20	18	길	6	2					
21	19	조	6	2					

<최종 월/ 주별 일정 확정 - google spreadsheet 활용. 담당 부서 진행: 3학년 선생님들은 1학기 중으로 수업 성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A	B	C	D	E	F
1	4월					
2	9월 2주					
3	5	6	7	8	9	
4	월	화	수	목	금	
5	1		수업	관찰(3기)관		
6	2	간부회의		서주연(1-4)관		
7	3	장영희 사후성찰	수업		서주연 사후성찰	
8	4			조동래(3-2)관	한유진(2-2)관	주석
9	5				수업	
10	6		수업		수업	
11	7	수업	수업		수업	
12	9월 3주					
13	12	13(월요일 수업)	14	15	16	
14		화	수	목	금	
15	1		수업			부장회의
16	2					
17	3	주석		최병희 사후성찰		수업
18	4		반유진(2-1)관		반유진 사후성찰	
19	5				수업	최영미 사후성찰
20	6	반유진 사후성찰			수업	
21	7	수업	출장		수업	
22	9월 4주					
23	19	20	21	22	23	
24	월	화	수	목	금	
25	1		차민승(2-7)관	수업		부장회의
26	2	간부회의				
27	3		수업	채민승 사후성찰		수업
28	4			윤주연(1-7)	윤주연 사후성찰	
29	5				수업	
30	6		수업		수업	
31	7	수업	수업		수업	

수업 나눔 일정 2주 전에 세부 일정 확정(사후 성찰 대화 일정 포함) _ 수석교사 진행

월-주별 일정이 확정까지 업무담당자가 진행하고 이후 세부 일정 확정부터는 수석교사가 전적으로 진행한다.

수석교사는 수업 성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순서가 된 교사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하고 google spreadsheet 링크를 공유하여 교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서 요일과 교시를 선택하게 한다.

전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기간 등을 제외하고는 1주일에 평균적으로 3명의 선생님과 수업 성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때 수석교사가 한 선생님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은 수업 참관 시간 1시간, 사후성찰 대화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5시간가량이 된다.

2) 사전설문 작성

참관과 사후성찰 대화의 초점을 설정하기 위해 사전설문을 시행한다. 전통적인 형태의 교수학 습설계도(lesson plan)를 요구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초점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한다.

수업 공유 전 사전설문 응답을 통해 수업 참관과 성찰의 초점을 정함_구글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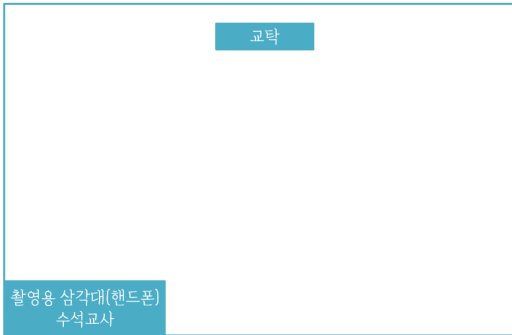
이들 문항의 공통점은 수업 설계와 참관 및 성찰 대화의 초점을 교사가 설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대한 깊은 존중을 표현한다.

3) 수업 참관

교사는 1시간의 수업을 촬영하여 수석교사에게 제출하거나 수석교사가 직접 참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1명을 제외한 모든 선생님은 수석교사가 직접 참관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수업참관을 선택한 교사 중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수석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직접 촬영하여 사후성찰 대화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수업‘성찰’ 프로그램의 효과는 수업을 공개하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직접 볼 수 있을 때 극대화될 수 있다(Knight, 2014). 따라서 수석교사는 수업 참관 전에 수업을 공유하는 교사에게 수업을 촬영해서 동영상을 제공하여도 좋을지 묻고, 교사가 동의하는 때에만 수업 동영상을 촬영한다. 촬영된 동영상은 수업 직후에 수업을 진행한 교사에게 공유하고 수업 성찰 대화 전 동영상을 보고 올 것을 권장한다.

촬영된 동영상은 수업 성찰 대화 후 수석교사의 모든 기기에서 삭제된다. 이는 수업을 여는 교사의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수석교사는 이러한 사실을 참여 교사에게 명확하게 안내한다.



수업 참관 시 수석교사와 촬영용 핸드폰의 위치 수석교사는 교실의 좌측 후반부에 앉아 수업을 참관하며, 일어서서 돌아다니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는 수업을 공유하는 선생님이 수석교사가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 받는 방해로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동영상 촬영할 때도 수업의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1 시간 동안 반드시 직접 참관한다.

4) 수업 분석

수업 나눔 후 사후성찰 대화를 시행하기 전 수석교사는 촬영된 수업 영상을 기반으로 수업을 분석한다. 분석은 notion을 활용하여 기록하며, 분석지에는 사전 설문 내용, 수업 관찰내용, 교사의 강점, 감정적 제안사항을 기록한다. 해당 분석지는 사후성찰 시 수업 나눔 교사와 공유하며, 근거에 기반하여 교사의 강점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수업 코칭 작업의 자료로 활용된다.

2022.11.4 (금) 이00 선생님

수업명: 영어 1

수업내용: **동원보안고 생활영어 수업(영어)**

수업목표:

수업과 관련하여 심도 있고 깊은 질문

신경쓰는 이유

교과와 관련된 부분

학생 수업에서 주목할 학습 목표 (특기/기초)

학습결과를 위해 준비한 것

의도의 달성여부 확인법

의성되는 어려움

수석교사 관찰 목적사항

1

Lesson 8
It's Up to You!

Class No. _____
Name _____

1.2021 Discovering Grammar Point 1

1. 다음 문장을 주어진 언어를 이용해 영작하시오. (answer: a, b, c, d)

2. 학생들 보편적 영어문법점의 수업을 듣고, 주의 사항 내용을 정리한 문장까지

3. Read the lecture, paying attention to the structure in bold. (Focus up! Instead of "이제야", look out! Don't forget!)

4. Find the sentence in the main text with the same structure as above.

5. 다음 문장을 the 비교급 the 비교급을 이용하여 영작하시오.

6. Practice

관찰 내용

- 수업 목적 달성
- 목적의 구현(target structure) 비계 결합 (특히 후 혹은 병렬)

도입

- 진도 확인

본시

the 비교급, the 비교급

a. 패턴 인지 (부가 비계 제공-not a but B-구문과 비교)

- (I do) - we do - you do - 교사 설명

b. 맥락정보-교과서 본문

c. target structure scanning(교과서 본문)

d. 작문 modeling

e. 작문 drill

a. 기본

b. 심화

not A but B

a. 패턴 인지 (별첨구조, 단어, 구, 절)

b. target structure scanning(교과서 본문)

c. 명동구조 활용 sentence completion

d. 보다 복잡한 구조의 문장 해석

<notion을 활용하여 정리한 수업 성찰 자료 화면 예>

5)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사후성찰 대화

사후성찰 대화는 학년 초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미리 안내한 성찰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때 수석교사는 수업을 공유한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정밀하게 성찰하고, 자신의 수업 철학 및 접근 방식을 명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한다. 또한, 수석교사는 교사가 사전 설문 내용, 수업 내용, 사후성찰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응답 간의 유기적 관계를 눈치 챌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간다. 사후성찰 대화에 활용된 성찰 질문은 교사가 개인적으로 자기성찰 혹은 동료 성찰을 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성찰질문**
- 요즘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은요?
 - 그리고요?
 - A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 잘하는 아이들조차도 실수하는 경향
 - 문제가 무엇일까?
 - 어려운 문제는 (외워서) 맞추고 쉬운것은 오히려 못 맞추는 - 이해의 문제
 -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
 - 학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학습지 제공 / 효과에 대한 의문
 - 무엇이 기억하게 하는가?
 - 선생님이 하신 수업 중 최고의 수업에 10점을 주신다면, 이번 수업은 1점부터 10점 중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 7점
 - 더 높은/ 낮은 점수를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만족
 - 시간안에 진도 완료
 - 아이들 수행이 만족스러웠다
 - 설계
 - 단계별 설명
 - 귀납법적 교육
 - 불만족
 - 시간 - 막달하는 느낌
 -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친구들과 비교 / 피드백의 빈도 저하
 - 사투리
 - SPOILING
 - 이 수업에 10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바꾸시겠어요?
 - 비교의 기회와 고민의 기회를 주겠다

사후성찰 대화에 사용된 성찰 질문과 성찰 내용 메모(예)

1:1 수업 성찰 대화 프로그램의 교사의 성인 학습자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은 사후성찰 대화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의 경험을 탐색하거나 가상의 수업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실제 수업상황을 자세히 탐색하고 성찰하고 있다. 둘째, 스스로 수업에 대해 만족스러운 부분과 개선하고 싶은 부분을 명료화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성인 학습자의 높은 자기 주도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다. 셋째, 교사가 자기 경험을 탐색하여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방향과 방법을 탐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교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존중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개별화된 탐색과 문제해결로 이어진다. 넷째, 수석교사가 특정 형태의 수업방식을 안내하고 요구하는 주제 중심(subject-based) 접근이 아니라, 수업을 공유하는 개별 교사의 실제 수업맥락에서 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도달 방법을 탐색하는 문제해결 중심(problem-based) 접근을 취한다는 점에서 성인 학습자의 특성과 부합하는 접근 방식이다.

또한 교사가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도록 돕는 대화를 통해 교사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전문성 신장 방향을 설정하도록 유도한다. 이때 교사의 강점은 실제 관찰된 구체적인 언행을 근거로 하여 파악하도록 유의한다. 관찰에 의한 구체적 근거 없이 강점을 나열할 경우, 교사는 수석교사가 단순한 립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쉽다.

강점

- 라프
- 활기
- 학생활동 시 시간 안내
- 주의를 집중시키는 간명한 ppt 화면
 - no distracting info
 - 특색 바탕



- 매우 정교한 사전 설계 (학습지 설계 참고)
 - 능동학습(active learning)을 위한 체계적 비계
 - 교사 주도 → 학생 활동의 짧고 반복적인 사이클
 - (I do) → we do(2) → you do 활동

2. 해석을 보면서 영어문장의 주어를 찾고, 주어 앞의 내용을 영어로 맞으세요.

1) 내가 더 많은 가구를 구매할수록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해진다.	The more furniture I buy, the more space I need.	주어:		주어 앞:	
2) 내가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 쉽게 기억한다.	The more I read, the less I remember.	주어:		주어 앞:	
3) 우리가 더 적게 지출할수록,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The less we spend, the more we idea.	주어:		주어 앞:	
4) 당신이 더 높이 오를수록, 더 추워진다.	The higher you climb, the colder it gets.	주어:		주어 앞:	

- deliberate practice - 귀납 학습
- element interactivity 개념 활용

강점을 명료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업 성찰 자료

수업을 관찰한 결과 드러난 강점을 구체적인 관찰 결과에 근거하여 명료화한다.

수석교사의 제안은 강점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주어진다. 이때 제언을 제공하기 전 수석교사는 '제가 한, 두 가지 제안을 해도 좋을까요?'라고 동의를 구한다. 요청하지 않은 조건을 하는 것은 성인 학습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배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night, 2015)

음성 기록

생각해 보세요. 여러번 정수를 받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근데 정수를 잘 받는 거죠. 더 잘 받는 거죠.

참석자 3 22:56
이게 떨어리가 돼서 나와야 돼요 여러번 이게 조금 많이 헛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배를 그려서 전체가 같이 나눠줘야 합니다. 같이 그래서 더 나은 정수를 받을게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를 붙이시면 되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면 할수록.

참석자 3 23:13
우리는 알게 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정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지금 이런 거는 모 같은 경우는 운전 전체를 주시 해준다고 볼 수 있겠죠. 맞죠. 네 이걸이 주어 동사를 더 하면 할수록 맞죠. 이거는 주어 동사가 이거를 더하게 해주라는 거잖아요. 맞죠. 이 행까지도 4번에 4번 붙시다 첫 번째 주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주는 뭐죠 그다음에 비교급은요.

참석자 3 23:41
음 좀 더 강 약해요 어떤 스타일이야죠 다시 보세요. 똑같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더 더 많은 옷을 입는 거죠. 맞죠. 맞죠. 더 많은 옷을 입는 거잖아요. 오 그렇게 되면 된단다. 그래서 더. 유 크루리스티를 읽어까지 보시면 되겠죠.

23:13* 추가 비계 설정 필요
27:46* Concept check questions

24:06 1x

네이버 Clova note를 활용한 담화 분석 장면

내실 있는 수업 성찰을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을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생의 발화를 분석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사후성찰 대화를 진행하는 모습.

교사와 수석교사는 화면에 띄워진 사전설문 내용, 관찰내용을 함께 바라보며 수업에 대해 근거에 기반한 구체적인 성찰을 진행한다.

교사와 수석교사가 관찰내용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하는 것은 교사에게 수업 성찰이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에 대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장치로, 교사가 자신의 수행을 자신과 분리하여 객관화하도록 돕는다.

6) 사후성찰 대화 후 영상 삭제

사후성찰 대화 후 촬영된 영상은 수석교사의 모든 기기에서 삭제된다. 이는 수업 성찰 대화에 참여하는 교사의 심리적 안전감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다.

5. 마무리 및 제언

2022년 창원남산고등학교에 도입된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의 일 년 일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 11월 22일 현재 전체 교사의 90% 이상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의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이 더욱더 유의미한 프로그램으로 안착, 발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1) 수석교사 업무지침의 명확성 확보

학교 구성원의 주관적 의견과 별개로 수석교사가 컨설팅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업무지침이 필요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창원남산고등학교에서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에는 몇 가지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 우선, 기존의 학년 군/교과군별 대표 교사 수업 나눔에 대한 높은 거부감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분위기는 대안으로 제시된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수석교사와 함께한 컨설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 있는 담당부장이 존재하였다. 담당부장과 업무담당자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없었을 것인데, 이는 학교의 프로그램이 행정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셋째, 관리자의 수석교사의 역량과 역할에 대한 비교적 분명한 소신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소신은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이 수석교사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닌 학교의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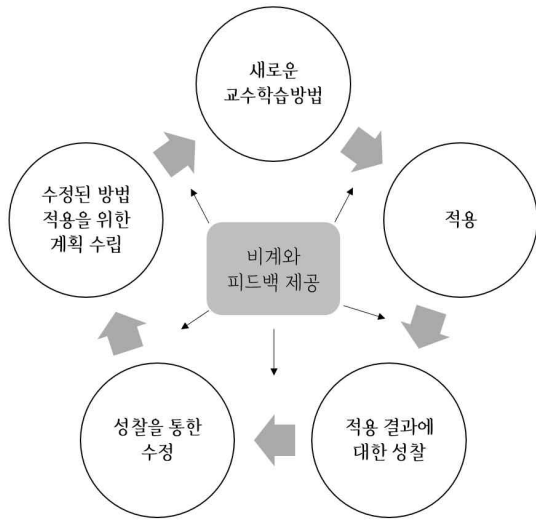
이러한 요인 중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석교사의 핵심 업무인 수업 컨설팅(코칭)은 원활히 진행되기 힘들다. 수석교사 업무지침이 실질적인 지침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수석교사의 업무 수행 형태가 학교 구성원의 개인적 관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의 담임이 담임의 역할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담임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 지침 혹은 암묵적으로 합의된 업무지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장이나 교감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것도 교장, 교감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 암묵적 업무지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석교사의 컨설팅 업무에 대하여서는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합의된 충분히 구체적인 형태의 업무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수석 교사별 수업 컨설팅 운영형태의 스펙트럼이 과도하게 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명확하게 합의된 명시적, 암묵적 업무지침의 존재는 업무 수행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며,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수석교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특히 가장 핵심적인 업무인 수업 컨설팅에 대해서는 업무지침이 너무나 모호하여, 수석교사가 학교에서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본인이 창원 남산고등학교에서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을 4년 동안 알차고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을지라도, 새롭게 발령받은 학교의 관리자와 업무담당자가 수석교사의 핵심 업무인 컨설팅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충분히 내실이 있는 수업 컨설팅/코칭을 제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창원남산고등학교 이전에 근무하였던 학교에서는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유의미한 컨설팅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였다. 업무지침에 근거한 학교 차원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체계적인 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사는 극소수에 그치기 때문이다.)

2) 단발성 수업 코칭/컨설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간 확보와 전문성 개발의 필요성

실질적인 수업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단발성 코칭이 아닌 연속적 코칭이 필요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석교사의 시간 확보와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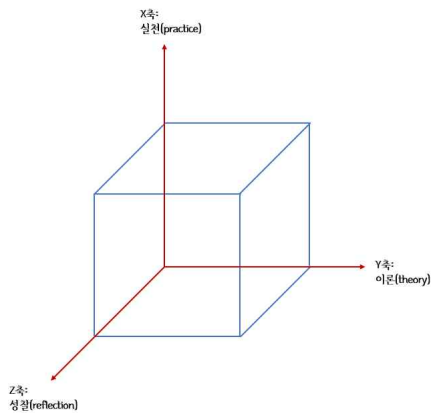
현재 창원남산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1:1 수업 성찰 프로그램의 가장 큰 한계는 프로그램의 ‘단발성’에 있다. 교사가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필연적으로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시도하게 되는데, ‘새로운’ 방식의 시도는 반드시 시행착오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후속 코칭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 구성원이 이러한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수석교사가 1명의 교사에게 다회의 연속적 코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 개인이 새로운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대한 정보를 자신의 수업을 통해 구현하는 것을 '전문적 학습(professional learning)'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학습자인 교사에게도 정교한 비계와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문적 학습은 단발성 코칭이 아닌 지속적·개별적 코칭으로 실현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실이 있는 수업 성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사 1인당 수석교사가 투자하는 시간은 최소 5시간이다. 1주일에 3명의 교사를 코칭한다고 할 때 필요한 시간이 15시간인 것이다. 그러나 수석교사의 업무는 컨설팅에 그치지 않는다. 수업과 평가 역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의 경우는 현재 심리학과 진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주당 5차시의 수업을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 학교 구성원들이 컨설팅을 수석교사의 주된 업무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요구하지 않았을 수업 부담이다. 새로 부임하는 수석교사에게 이러한 수업 부담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수석교사의 업무, 특히 컨설팅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한 것과 관련이 깊다.

수석교사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컨설팅과 수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연구' 역시 수석교사가 상당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영역이다. 수석교사가 연구에 상당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자신의 교과에 있어서 교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수석교사로 선발 되었을지라도, 자신이 가진 교과 전문성에 대한 암묵 지식(implicit knowledge)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의 명시 지식(explicit knowledge)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교과뿐만 아니라 타 교과 교사에게 컨설팅을 제공할 정도의 교수학습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도, 즉, 교수학습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명료히 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



교사 교육 접근법에 대한 삼차원 모델(Kitchen, J. & Petrarca, D.(2016), 한국의 교사와 교사되기(이혁규, 2021)에서 재인용)

수석교사로 선발된 교사들은 이미 상당 정도의 실천적 지식과 그에 기반한 암묵적 지식을 갖고 있다. 교사 지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수석교사는 이러한 암묵적 지식을 명시 지식화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와 성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 수석교사제도 운영은 이를 위한 시간 확보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수석교사는 효과적인 교사 지원을 위해 컨설팅 혹은 코칭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여야 한다. 교수학습 전문성과 컨설팅 혹은 코칭 전문성은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교수 컨설팅/코칭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성 개발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지금, 교사 지원을 위한 전문성 개발을 위해 수석교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역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Knowles, M. S., Iii, E. H. F., & Swanson, R. A. (2015). *The Adult Learner: The definitive classic in adult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8th ed.). Routledge.
- Knight, J. (2014). *Focus on Teaching: Using Video for High-Impact Instruction* (1st ed.). Corwin.
- Knight, J. (2015). *Better Conversations: Coaching Ourselves and Each Other to Be More Credible, Caring, and Connected* (First). Corwin.
- Stanier, B. M. (2016). *The Coaching Habit: Say Less, Ask More & Change the Way You Lead Forever* (1st ed.). Page Two.
- Goodwyn, A. (2016). *Expert Teacher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Teacher Quality and School Development)* (1st ed.). Routledge.
- Thomas, S., Knight, J., Harris, M., & Hoffman, A. (2021). *Evaluating Instructional Coaching: People, Programs, and Partnership*. ASCD.
- Sweeney, D., & Harris, L. S. (2020). *The Essential Guide for Student-Centered Coaching: What Every K-12 Coach and School Leader Needs to Know* (1st ed.). Corwin.
- 이혁규 (2021). 한국의 교사와 교사 되기. 교육공동체벗
- <https://www.instructionalcoaching.com/great-questions-for-instructional-coaches/>

수석교사를 해야 하는 이유

조보형(충무고등학교 수석교사)

< 목 차 >

1. 좌충우돌 신규 수석교사
2. 수석교사 무엇까지 해봤나요?
3. 수석교사가 있고 없과의 차이는?
4. 수석교사로서의 어려움은?
5.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 좌충우돌 신규 수석교사

1) 준비된 수석교사?

2019년 수석교사에 임명되었다. 교내 수업 연구 교사 동아리 ‘생생학교’ 회장을 맡아 3년을 운영하는 동안 그 일에 사명감을 느껴 수석교사에 지원했다. 당시만 해도 함께 수업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사 연구 공동체를 잘 꾸려가는 것이 수석교사 역할의 전부인 줄 알았다.

한 달간의 한국교원대학교 신규 수석교사 합숙 연수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합격의 기쁨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로 자신감이 넘쳐흘렀다. 막상 발령을 받고 새 학교로 이동하여 수석교사를 시작하게 되자 낯선 학교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석교사’라는 타이틀이 자신에게도 무척 어색했다. 관리자뿐 아니라 동료 교사 대부분이 수석교사와 근무해본 경험이 없다는 사실이 큰 장벽으로 다가왔다. 그 누구도 수석교사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해달라’는 요청이 없다면 과연 나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막연하기도 했다.

교사들과 관계를 맺는 일도 쉽지 않았다. 작은 말실수나 가벼운 행동은 쉽게 구설수에 오르기 십상이었고 마음을 터놓고 지낼 동료들 만드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매사에 ‘수석교사로서’라는 불필요한 자기검열을 배우게 되기도 했다.

우선 잘하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바로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교내 연구 공동체 ‘배움의 충전’을 구성하고 회원들을 모집했다. 감사하게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여해주셨고 매월 수업과 아이들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새로운 수업 방법과 교육 철학의 교환이라는 만남을 통해 아주 더디지만 서서히 학교에 적응되어 갔다.

2) '배움의 충전'

통영이라는 지역 자체가 인구 소멸 위험 도시로 교육 환경 여건이 열악한데 특히 현재 근무교사는 비평준화 지역의 비인기 학교로 생활교육이 매우 힘든 학교이다. 학교의 서열이 여전히 존재하는 지역에서 가정환경이 열악한 아이, 어려서부터 각종 비행을 경험한 아이, 기초 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곳이다.

학교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학생이 당연히 학교를 가야지”, “학생이 당연히 수업을 들어야지”라는 말이 안 통하게 된다. 담임 선생님의 일과는 습관적으로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들에게 전화하기로 시작해서 수시로 조퇴시켜달라는 민원 처리하기, 한 시간만이라도 학교 오라고 중간 점검 전화하기 등 아이들을 돌보느라 하루가 다 가버린다.

학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태반인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논하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함께 신장하자고 그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학교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해보기 위해 먼저 수업부터 함께 논하기 위한 장을 펼치기로 했다. 왜 이렇게 수업이 힘든지 수업 방해 요인을 공동체가 함께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해 규칙을 정해 실천하고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이 수업 속에서 학교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했다.

2. 수석교사 무엇까지 해봤나요?

1) 교내 수석교사

학교의 실태를 공동체가 함께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시작하기로 했다. 2월 이틀 동안 15시간의 새 학년 맞이 연수 프로그램을 긴 시간 고민한 끝에 커리큘럼을 완성하고 연수를 진행하였다. 준비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틀 연수를 혼자서 해낸다는 것이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새로 전입 오신 선생님들께서 걱정했던 것보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겠다며 인사해주실 때 보람을 느꼈다.

올해 신규 교사 발령이 8명, 매년 5명 이상의 신규 교사가 발령받아 오는 비선호 지역의 비선호 학교라면 첫출발을 하는 그들에게 안내자,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내 새 학년 맞이 연수 때는 신규 교사가 발령을 받기 전이라 이후 따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업이고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일에 매몰되기가 쉽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직업인으로서의 교사만 남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퇴근 후 학교를 벗어나 여가를 잘 활용해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잘 충전하는 교직 생활을 하기를 조언했던 기억이 난다.

[새 학년 맞이 연수 교육과정 편성]

날짜 교시	2. 17.(목) - 1층 다목적실	2.18.(금) - 1층 다목적실+정독실
1교시 09:10~10:00	등록 및 전입교사 소개	"함께 실천해요2" 월드카페 (휴대폰/교복/수업/전학공)
2교시 10:10~11:00	업무 분장 발표	"함께 실천해요1" 월드카페 (교권/흡연예방/출석) 전체 공유
3교시 11:10~12:00	교과별 시수 편성	학년별 교육과정재구성 사례
12:00~13:00	점심 시간	
4교시 13:00~13:50	"강당으로 오세요!" 환대의 시간(전체 서클)	학년별 비전 및 생활지도 방안 "올해 우리 학년은?"
5교시 14:00~14:50	환대의 시간(모둠 서클)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 (학년 비전을 담은 프로젝트 수업 설계)
6교시 15:00~15:50	"1층 다목적실로 이동!" 총무고가 궁금하다 - 사례 발표 - 이○○, 전○○, 최○○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 (학년 비전을 담은 프로젝트 수업 설계)
7교시 16:00~16:30	2022. 학교 비전 정하기 "올해 우리는 어디로?"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 공유 및 마무리

[멘토링 연수 교육과정 편성]

교과목	교수요목	시수	연수방법	멘 토 성 명	연수일시
교사론	교사의 자질과 책무	2	강의 및 토의	조보형	05.13.
교육혁신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2	강의 및 토의	조보형	05.20.
프로젝트수업	PBL 수업 이론과 실제	2	강의 및 토의	조보형	06.10.
독서토론	독서 활용 수업	2	강의 및 토의	조보형	06.17.
학급경영	학급긍정훈육법	2	강의 및 토의	조보형	07.08.
교사론	선배들과의 만남	2	집단 토론	강○○	07.15.
상담학	학생 상담의 실제와 적용	2	강의 및 질의 응답	박○○	09.02.
학생생활지도	학생 생활지도 유의 사항	2	강의 및 질의 응답	이○○	10.14.
학생진로지도	학생 진로진학지도	2	강의 및 질의 응답	이○○	10.21.
학교혁신	행복학교	2	강의 및 질의 응답	김○○	11.11.
계		20			

이후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교육학 관련 도서를 선정하여 함께 읽거나 교내 선배 교사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업무 관련 연수와 진로진학지도 연수, 학생생활지도 연수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올해 맞이한 8명의 신규 교사와의 관계는 수석교사로서의 역할 정립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었다. 단순히 고충을 상담해주는 역할이 아닌 서로가 대등한 관계에서 수업 전문성을 논하기 위해 노력했다. 1학기 공개 수업 주간에는 많은 선배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고 2학기 공개 수업 주간에는 신규 교사들이 수업을 공개하고 컨설팅을 받도록 진행하였다. 한 달여 간의 시간 동안 지도안 짜기, 사전 수업디자인 협의회, 공개수업 촬영, 피드백과 본인의 수업 영상과 컨설팅록 등을 제공하고 각자 수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학 자료까지 매칭을 해주었다.

수업 촬영과 컨설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1주일 동안 쉴 틈 없이 교실을 뛰어다니며 체력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기도 했다. 특히 출장으로 인해 수업 참관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구 부장님께 촬영을 부탁드린 영상을 퇴근 시간 이후 학교에 남아 보면서까지 수업 컨설팅에 최선을 다했다. 신규 교사들이 생애 최초로 받는 수업 컨설팅이라는 사실에 수석교사로서 사명감을 느꼈고 그 어떤 활동보다 생동감을 느꼈으며 그동안 축적된 수석으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 같아 뿌듯했다.

[수업 나눔 일정]

연번	교사명	학반	수업 교실	날짜	교시	교과	단원
1	김○○	2-2	2-2	10/25	3	독서	좋은 글 선택하여 읽기
2	김○○	3-2	3-2	10/25	5	언어와매체	국어의 구조
3	이○○	1-4	과학실	10/25	7	통합과학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4	최○○	2-2	2-2	10/26	6	생물 I	인체의 방어작용
5	정○○	2-5	체육관	10/27	5	스포츠 생활	스포츠와 표현
6	오○○	1-4	1-4	10/27	6	수학	함수의 뜻과 그래프
7	장○○	3-5	과학실	10/28	3	화학II	화학 평형

[컨설팅 일정]

연번	교사명	학반	수업 교실	날짜	교시	컨설팅 일시	장소
1	김○○	2-2	2-2	10/25	3	10/25 12:30~13:30	수업컨설팅실
2	김○○	3-2	3-2	10/25	5	10/25 16:30~17:30	수업컨설팅실
3	이○○	1-4	과학실	10/25	7	10/25 16:30~17:30	수업컨설팅실
4	최○○	2-2	2-2	10/26	6	10/26 16:30~17:30	수업컨설팅실
5	정○○	2-5	체육관	10/27	5	10/27 16:30~17:30	수업컨설팅실
6	오○○	1-4	1-4	10/27	6	10/27 15:30~16:30	수업컨설팅실
7	장○○	3-5	과학실	10/28	3	10/28 12:30~13:30	수업컨설팅실

2) 교외 수석교사

지방 소도시의 장점이자 단점이 안정감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또한 마찬가지로 공동체 의식과 동료 의식이 강한 데 반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에 다소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선진문물을 접하는 것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있는 창원과 인근 마산, 김해 지역을 평일 왕복 3시간을 달려가 수업 연구회 활동을 하고 돌아와 다시 수업 연찬을 전파하는 활동이 쉽지만은 않은데 왜 하고 있는가? 수석교사가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함께 연구 활동을 해온 연구회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고 정체된 지역과 학교에 지치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지원형 ‘경남PBL연구회’ 회장 활동을 통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현장에서의 프로젝트 수업 실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무척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8분의 3학년 교과 선생님들과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젝트’라는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실천하였다. 중요한 것은 수석교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업 혁신의 사례와 결실을 전파할 수 있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영지역교육지원청과 함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내 컨설팅을 꾸준히 해왔고 책 읽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독서교육 지원단 활동 또한 매년 하고 있다. 학교별로 전문적학습공동체 업무 담당자는 지정되어 있지만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업무를 대하는 온도차와 전문성 차이는 매우 크다. 수석교사가 되기 전부터 교내 수업 연구 교사 동아리 활동 등 동료교사와의 협업 활동을 매우 좋아했고 그것이 가장 큰 무기이자 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무담당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현장을 방문하고 담당자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당 학교 실정에 맞는 조언 등의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하고 관내 교감 선생님들을 모시고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관내 업무담당자를 학기별로 모시고 퍼실리테이션을 진행하는 등 교육 소외 지역에서 수석교사의 역할은 만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역 장학사님과의 협업으로 2019년 통영교육지원청 비경쟁독서토론 행사를 최초로 기획해내고 매년 행사를 진행하며 책 읽기의 즐거움을 전파한 부분은 자랑스러운 성과 중 하나이다. 초, 중, 고 다양한 학교급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연구 기반 독서 교육의 방법을 참관 하신 선생님들께도 알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사님의 요청과 지원, 그리고 뜻을 함께 하는 수석교사와의 협업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올해는 전공 교과목인 지역 연합 전문적학습공동체 ‘경남 중등 한문교육연구회’ 회장을 맡아 소수 과목 교사를 모아 고충을 나누고 서로의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여름 방학을 활용하여 자체 ‘2학기 맞이 수업 설계’ 연수를 개설하는 등 동교과 교사들과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3. 수석교사가 있고 없과의 차이는?

1) 수업을 연구하는 교직 문화

4년 동안 매년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실천하고 있다. 새 학년 맞이 때 설정한 주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수업을 논한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무시할 수 없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라도 선생님들을 설득하여 프로젝트 수업을 함께 실천해왔다. 4년 차에 접어든 지금은 학년부에서 자발적으로 프로젝트 수업 연수를 요청해오시고 수시로 프로젝트 수업 설계와 진행에 대한 고민 등을 의논하러 직접 찾아와 주신다. 마지막 발표회를 앞두고 협업을 통해 행사를 준비하는 등 아이들을 위해 수업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는 것이 정말로 감사할 따름이다.

매월 한 자리에 모여 수업을 논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교내 연수가 당연한 풍토가 되었고 공개수업에 관한 인식이 변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수업이라는 것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 아니라 언제든지 참관할 수 있고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공재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수석교사의 상시 공개수업과 신규 대상 공개수업, 대외 공개수업 등을 수시로 실천하기 때문에 교실을 연다는 것에 대한 학교 전체의 거부감이 덜하다. 힘든 학급이 있으면 먼저 교실을 열고 와서 봐달라고 요청하는 이러한 변화가 흔한 일은 아닐테니 말이다.

2)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논하다

모두가 힘든 학교,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혼자서 혁신을 논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야 가능하다. 그 중심에 수석교사가 있다. 매월 진행되는 공식적인 전문적학습공동체 연수 때 수업뿐 아니라 학교의 문제 사안, 최근 학교의 분위기, 교사 개인의 어려움 등을 전문적학습공동체 안에서 함께 토로할 수 있도록 다모임 형태의 운영도 했다. 교권 침해와 학습 의욕이 없는 아이들로부터 받은 많은 상처들이 동료성을 통해 회복이 되는 자리로 공감과 말 없는 지지로부터 많은 선생님들께서 위로를 받으시고는 했다.

공동체가 함께 비전을 정하고 수업 규칙을 정해 생활지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뜻을 모아 한 방향을 향해 실천할 때 아이들이 서서히 변한다는 것을 4년 간의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수업을 변화시키자 교실에서의 계층 아닌 계층이 서서히 무너졌다. 대학도 필요 없고 공부의 의미를 외면하던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이런 공부를 해냈다는 것에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목격하였다. 특히 긴 호흡의 프로젝트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에게 수업 피드백을 받았을 때 힘들었지만 뭔가 굉장한 수업을 한 것 같다는 진솔한 소감에 감동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치를 바탕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수업을 왜 함께 논해야 하는지 그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통영, 거제 등 인근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사례를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석교사 직무활동에 대한 교내 교원 반응]

수석교사가 있어서 좋은 점	
신규 교사	선생님들의 수업의 질 관리와 교수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힘 써주시고 교사에게 당면한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담을 통해 래포를 형성하여 학교 생활에서의 적응을 도와주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교사	우선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때 구심점이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자주 모이기도 어렵고 방향이 자주 바뀌기도 하는데요. 수석교사로 인해 여러 수업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과 관련한 경험이 풍부하시다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고민이 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다양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더 깔끔하게 다듬어질 수도 있었구요~
신규 교사	수업을 컨설팅 해주셔서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교사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수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도록 해주십니다. 본교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수업 사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업방법을 시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업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신규 교사	1. 교수학습 측면: 최근의 수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방법을 안내하여 학생 중심의 수업 디자인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2. 생활지도 측면: 단위학교의 상황을 파악하여 신규교사가 중점을 두고 지도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는 데 섬세한 조언이 가능하다. 3. 대인관계 측면: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규교사와 경력교사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 생활의 적응을 돕는다.
신규 교사	학교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교사들끼리 서로의 수업에 대해 얘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 과목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경우에는 더욱 꺼려진다. 수석 교사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수석 교사가 일방적으로 교사들에게 조언하고 수업방식을 바꾸는 형식이 아니라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수업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제도적으로 수석교사의 역할을 만들고 지위를 부여하면, 교사들도 다른 교사들에 비해 쉽게 마음을 터놓고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중견 교사	수석교사가 본교에 있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학공, 수업 관련 연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수업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p>또한 본교 수석교사는 신규교사, 저경력 교사의 수업 멘토링을 직접 하시는데 수업 공개를 부담스럽게 느끼긴 하지만 한 번 용기를 내서 하면서 큰 배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p> <p>마지막으로 수석교사의 주도 하에 프로젝트 수업, 교과융합 수업을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실제 중심점이 되어 이끄는 교사가 없으면 교과 융합 수업이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p> <p>하지만 계속 교과 모임을 주도해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수업을 시도해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p>
<p>중견 교사</p>	<p>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와 비교해봤을 때 수석교사의 존재 여부는 학교 문화와 풍토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한 달에 한번 고민을 나누며 자신의 수업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수업나눔을 격려해주시고 연수(외부,내부) 등을 통해 다양한 수업사례를 공유해주셔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p> <p>탐구프로젝트를 시도할 때 막막함이 있었는데 같이 협의회를 가지며 아이디어를 얻었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p> <p>수석선생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면 시도해보지 않았을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p>
<p>고경력 교사</p>	<p>인사이동 후 연수업무를 맡아서 그간의 내용과 별다른 없이 끌고 나가는 것 하고 아예 전문적으로 맡아서 연구하고 내밀화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그 내용과 깊이가 달라 훨씬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잘 됩니다.</p>
<p>고경력 교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로운 교육 이론과 수업 방법의 소개가 좋음 2. 다양한 학교 활동에 도움이 되는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 간의 상호 소통에 도움 3. 초임 교사들의 학교 적응을 도움 4. 초임 교사들과 열의 있는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고민의 장을 마련하고 상호 긍정적인 변화를 이끔
<p>교감 선생님</p>	<p>우선 수업나눔이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가 큰 저항없이 이루어진다는 점. 만약 관리자가 이를 권유하거나 강조하더라도 강요로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큼. 인상깊게 본 것은 새학년맞이 워크숍 진행도 좋았구요, 특히 학년별 프로젝트 수업 주제를 토론, 협의를 통해 도출해내고 학기중에 수석샘이 중간 점검도 하고 층무학술제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이 과연 수석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집단지성의 힘을 비교적(?) 원활하게 발휘하게 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4. 수석교사로서의 어려움은?

1) 정체성에 대한 고민

많은 일을 한다. 학교 안팎의 요청을 다 들어주다 보면 늘어나는 일을 감당 못할 정도로 일에 중독되어 사는 것도 같다. 지위와 권한, 직무 지침 등이 없다 보니 혼자 하는 이 많은 일들이 과연 수석교사 고유의 일인지 보직 교사가 해야 할 일인지 회의가 들 때가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혼자서 한다는 느낌이 들 때 혹은 학교의 중요한 사안 등을 결정하는 자리에 소외될 때 상처를 받기도 했다.

지위에 맞는 보상과 대우는 어디까지일까? 우리 학교에만 있는 수석교사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의 지위에 맞는 대우란 무엇인지 그 자체만이라도 함께 고민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 일일이 따져서 바로잡거나 침묵하고 감내하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사실이 참으로 서글프다.

2) 방대한 역할

모든 수석 선생님이 수업은 기본이고 각자의 역량 바탕으로 무수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 필수적인 업무와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구분이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여 조금 더 명확하고 현실성 있게 체계화된다면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집중해야 할 업무나 연구 분야가 정해진다면 한 방향을 바라보며 수석교사 집단의 전체적인 전문성 신장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5.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 관심과 지원

수석교사 선발 전형 응시율이 매년 높아진다. 어떤 유인책이 그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까? 주변에 수석교사를 지원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 권하고 지원해줄 것인가? 끊임없이 연찬할 수 있고 동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 매력적으로 느껴지겠지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착되지 못한 수석교사 제도 속 개인은 너무 초라하기 때문이다.

매년 퇴직하시는 수석 선생님들의 빈자리만큼이라도 채워야겠다는 교육청의 선발에 대한 관심과 수석교사가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각종 연수 개설 지원 등 이제는 변화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2) 인식의 전환

수석교사는 학교 안팎에서 수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사적인 영역으로 취급되던 수업을 공적인 영역으로 격상시켜 함께 모여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최고의 권위를

지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단절되고 파편화된 교직 문화를 개선 시키고 학교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만드는 막강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수업을 이야기하고 수업을 통해 우리 학교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교실을 열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영감을 끊임없이 불리일으키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과연 어떤 수석교사가 필요할지 시대가 요구하는 수석교사는 어떤 모습일지 수석교사에 대한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3) 수석교사를 해야 하는 이유

2019년 발령 초창기 수석교사에 대한 날 선 호기심이 이제는 “우리 수석 선생님”이라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체감한다. 학습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인정받는 느낌이 참 좋다. 수석교사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고 권위를 세울 수 있는지 방황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권위라는 것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에서 저절로 우러난다는 것을 4년간의 수석교사 생활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었다.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해 수업이라는 소재로 동료성을 구축해 서서히 학교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과정이 수석교사로서의 가장 큰 보람이자 매력이다. 이 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점이 감사할 따름이다.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와 주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나누는 수업 고민 이야기, 학교 이야기, 인생 이야기, 개인적인 고민 상담까지 어느새 수업컨설팅실은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수석교사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